

Emmanuel

임마누엘 [정결호]

Vol.17 No.1 April 22, 2018

Contents

Vol.17, No.1, April 22, 2018

I. 정결호를 얻어	02	말씀의 창 - 시편 51:7
	04	담임 목사 칼럼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II. 빛과 소금	06	믿음의 선진들 - 조덕삼 장로와 이자의 목사
	08	선교 현장 보고서 - 아이티 정광 / 김성현 선교사
	10	찾아온 땅 끝 - 이슬람 바로 알기
	12	공예배 현장 - 유치부 예배 현장
	14	임마누엘 평원 소개 - 서부 평원
	16	시대를 분별하라 - 인공지능과 기독교의 미래 /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독교의 위기를 가져 오는가?
III. 설민인 물기	20	시가 있는 풍경 - 만약 흥해가
	21	전도팁 - 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22	임마누엘 레시피 - 오코노미야키
	24	크리스천 명언 - 헤딩거
	25	임마누엘 카툰
	26	True Community, 공동체를 꿈꾼다 (1) - 자신의 발을 내밀어야...
	28	건강 칼럼 - 수면 무호흡증
	30	함께라서 좋아요 - 장애인 에티켓 배우기
IV. 임마누엘 사람들	31	행복한 사람들 - 신임 네 장로님들과 함께 천사도 흠모하겠네
	32	부활의 증인 1 -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내가
	34	부활의 증인 2 - "Identity set in christ, not in worldly success"
	36	복음의 씨 -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짬뽕골라
	38	인도 단기 선교 간증 - 인도 단기 선교 갈무리
	40	멕시코 단기 선교 간증 - 일꾼을 세우시는 훈련의 터
	42	멕시코 단기 선교 간증 - My Mexicali Mission Trip
	44	공동체를 세우는 중고등부 - What does inreach ministry...
	46	예수님께 보내는 편지 - 사랑하는 예수님께
	48	어린이 목자 간증 - Sheep and Shepherd
	50	가정 예배 간증 - 가정 예배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52	나의 노래 - 예수, 오 그 이름
	54	푸른 목장 - 동경 목장
	56	부서 소개 - 상담 사역부
	58	크리스천 영화방 - 페르디난드 (원제: Ferdinand, 2017)
	60	임마누엘 인터뷰 - 데이빗 문 목사

말씀의 창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7)

CLEANSE ME WITH HYSSOP, AND I WILL BE CLEAN;
WASH ME, AND I WILL BE WHITER THAN SNOW.
(PSALM 51:7, NIV)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학생들은 모두 걸레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들이 헨 옷 중에 헨 옷을 골라 몇 겹으로 해서 만들어주신 걸레입니다. 하루 공부가 끝나면 우리는 방과 후에 교실과 복도 청소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나머지 공부'를 한 후 청소를 했고, 어떤 날은 분반장의 지휘 아래 교실에서 앞뒤로 나란히 한 줄로 앉은 '분반'(分班)이 맡아서 했고, 어떤 때는 추호 같은 담임 선생님의 감독하에 반에 속한 모든 학생들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다른 반들과 경쟁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실 나무 바닥을 빗자루와 물로만 닦지 않고, 깨끗함을 오래 가게 하기 위해 초를 문지르기도 하고, 엄마 물레 들고 나온 들기름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이이는 사, 이삼 육, 이사 팔, 구구단을 외면서, 바닥에 때는 물론 먼지 하나 없을 만큼 깨끗해질 때까지 걸레질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정결함'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교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몸가짐과 예절도 깨끗하도록 '바른 생활'을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무릎을 몇 번이나 기우고 또 기운 헨 옷들을 입고 있었지만, 당시 어머니들은 우리를 몸과 마음가짐이 깨끗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기 위해, 냇가에서는 빨래를 하였고 집안에서는 회초리를 들며 무던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며 사회의 흐름과 함께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의 바른 자세와 예절은 안중에 없고,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조금 더 잘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에 목숨을 거는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결혼의 정조보다는 외모 꾸미기, 돈, 능력, 자유분방한 개인 생활을 훨씬 더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전 동거나 불륜 등이 이제는 더 이상 별로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관가나 기업에서는 과거처럼 청백리가 존경받기보다는 인격에 좀 흠이 있어도 능력 있는 인재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교회까지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물든 성도들은 '죄'에 관한 설교를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죄'에 대하여 별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죄의 두려움을 잘 모르고, 삶의 많은 영역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이혼이나 불륜, 포르노 중독 등의 비율이 크리스천이나 비크리스천 사이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 못지않게 세속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대로 흘러가도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기록하라”(레 11:45, 16번전 1:16)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마 5:8)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록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히 12:14)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교만, 정욕, 탐욕, 미움, 시기, 분쟁, 음행 등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멀리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은 죄악들은 철저히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용서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므로 하나님을 항상 뵈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글 손원배 담임목사



조덕삼 장로 (1867-1919)



이자익 목사 (1826-1959)

금산교회

조덕삼(1867~1919)장로와 이자익(1882~1959)목사

전북 김제 용화 마을의 마방(마굿간) 주인이며 당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이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조덕삼이었다. 조덕삼은 부자였지만 매우 겸손했고 테이트 선교사와 그의 조사인 김필수로부터 복음을 들었다. 오랫동안 테이트 선교사를 지켜봐 온 조덕삼의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왜 왔는가?”하는 물음에 테이트 선교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헌신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테이트 선교사의 용기에 유교 보수 집안의 조덕삼은 감동했고, 이후 사랑채를 내어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것이 바로 금산교회의 시작이다. 1905년 봄부터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조덕삼 가족을 비롯하여 마부였던 이자익, 같은 마을 박화서 부부, 왕순철, 박동호, 김윤창이 예배를 드렸다.

이자익은 경남 남해에서 출생했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 친척 집에 살다가, 17살 때 육지로 가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경남 하동 근방에 도착해 이때부터 행상 차림을 하고 김제시 금산까지 오게 됐는데, 그는 무조건 금산면 금산리에서 제일 부잣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바로 조덕삼의 집이었다. 그때부터 이자익은 조덕삼의 마부로 일을 했다. 조덕삼은 머슴이었던 이자익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었다. 하루는 조

덕삼의 아들이 서당 훈장을 모시고 한문을 배우고 있는데 그 곁을 지나다니던 이자익이 천자문을 술술 외우는 모습을 본 조덕삼은 그날 이후로 자기 아들과 같이 공부를 시켰다.

그러던 중, 테이트 선교사가 금산리에 오면서 1906년 5월 30일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세례를 받고, 한 주 후에 함께 집사로 임명을 받았다. 이처럼 금산교회는 조덕삼과 이자익을 중심으로 부흥하기 시작했다. 주인 입장에서 머슴이 자기와 같은 집사라는 것이 불쾌할 수도 있지만, 조덕삼은 조금의 불만도 없이 이자익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 1년 후 교회가 부흥되면서 금산교회에서도 한 명의 장로를 뽑게 되었는데, 장로 후보는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조덕삼과 이자익이었다. 상식적으로 누가 장로가 되겠는가? 조덕삼은 이자익의 상전이며 15살이 더 많았고, 인격과 인품도 흠잡을 데 없는 데다 마을의 최고 부자이며 금산교회의 터를 마련해준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던 투표 결과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이다. 당시 장로는 실제 설교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총책임자였다.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상전인 조덕삼이 이자익의 설교를 들어야 하고, 함부로 반말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머슴을 도와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것이 싫어서 곤당골 교회에서도 양반들이 나갔고,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겨 연동교회에서도 양반들이 뛰쳐나갔다. 금산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장내가 웅성 웅성해졌다. 그런데 그때 조덕삼 집사가 테이트 선교사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먼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덕삼은 이처럼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되었지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드렸을 뿐 아니라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내 신학공부를 지원했고, 이자익이 목사가 되자, 1915년에 금산교회로 모셔 당회장 목사로 깎듯이 대접했다. 금산교회 내에 유광학교를 설립해 사람들을 모아 한글과 역사를 가르쳤고 나중에 이 유광학교 출신들이 전주와 금산에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 12월 17일 조덕삼 장로는 5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의 마지막 유언이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사를 지내지 말라. 예수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내 대를 이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10대와 13~15대 국회 의원을 지냈던 조세형 장로(금산교회)가 조덕삼 장로의 손자이기도 하다

지금 금산교회는 1908년 4월 4일에 헌당 된 모습 그대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6.25 때 동네에서 거의 유일하게 불타지 않고 보존된 ‘ㄱ’자 모양의 교회이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 모습은 기억자 교회가 많은데 이것은 남녀를 구분해서 앉히기 위한 것이었고, 기억자 교회가 아닌 곳은 천으로 남녀의 자리를 구분했다. 이것을 “교회가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기억자 교회의 모습과 예배당을 천으로 구별한 것은 오히려 남녀 차별에 반대하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동석하지도 않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여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기억자로 만들고, 불편하지만 천으로 예배당을 구분한 것이다.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할 뿐이다.

“예수 안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 승동교회 설립)

출처: [HTTP://WWW.SNUCA.ORG](http://www.snuca.org)

사진 출처: [HTTP://PHOTOHS.CO,KR/XE/CB_JIKYUNG/7584](http://PHOTOHS.CO,KR/XE/CB_JIKYUNG/7584)

편집부 정리 및 편집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아이티 모이 지역에서 사역하는 정 광 선교사입니다. 먼저 간단히 아이티 나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티는 한국 면적의 1/3, 한국 인구의 1/5인 나라로서 일 년에 평균 \$250이 안되는 수입으로 살아가는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이티 사람들의 가난은 상상을 초월하며 빈부의 격차는 세계 다른 나라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큼니다. 또한, 문맹률은 전 국민의 60%로 세계에서 가장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아프리카 종교를 뿌리로 하는 토착 신앙인 부두교의 관습이 생활 전반에 배어 있는 나라입니다. 더욱이 2010년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폐허가 된 나라의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벌써 8년이 지난 지금은 도심지에 위치한 LOVE AND HOPE 제1 선교센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고, 지금은 제2 선교 센터인 임마누엘 모이 센터가 준공 중에 있습니다. 수도인 PORT AU PRINCE에서 약 2시간가량 떨어진 모이는 산속에 위치하여 전기와 수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명의 혜택이 없는 아름답지만 열악한 시골 마을입니다. 일자리와 학교가 없어서 무기력함과 배고픔으로 하루하루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로 마을은 넘쳐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뜨거운 사명감과 영혼 구원의 사랑을 가지고 진행 중이며 이루어 나갈 사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 **교회 건축:** 자립 된 교회를 건축하여 모이의 복음화와 영혼 구원, 건축 및 노방 전도
- 2) **교육과 직업 훈련:** 학교가 없어 가지 못하는 모이에 학교를 건축하여 교육과 직업 훈련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립 능력을 갖춘 청소년들 양성
- 3) **병원 사역:** 병원이 없는 모이에 센터 내에 병원 시설을 갖추고 치료 사역
- 4) **치유 사역:** 자연 속 센터에서 열악한 도시 환경에 지친 사역자들의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영성 치유 사역

아이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증거합니다. 세계 곳곳의 사역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아이티 모이와 저를 위해,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 정광/김성현 선교사 (아이티, 임마누엘 파송선교사)



민속 이슬람

이슬람은 신앙의 형태로 정통 이슬람(ORTHODOX ISLAM)과 민속 이슬람(FOLK ISLAM)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니파나 시아파는 정치적 이유로 갈라져 있지만, 신앙의 형태 면에서는 크게 정통 이슬람과 민속 이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민속 이슬람은 전체 이슬람의 70%에 가깝지만, 무슬림 여인들의 95%는 어떤 부분에서 민속 이슬람과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많은 이슬람은 정통 이슬람입니다. 민속 이슬람(FOLK ISLAM)은 지역마다 가진 민속적인 정령숭배 신앙과 이슬람 신앙이 혼합된 이슬람으로 민속적인 부분이 이슬람에 첨가되었기 때문에 민속 이슬람(FOLK ISLAM)이라고 부릅니다. 민속 무슬림은 정령숭배, 신비주의에 젖어있어서 영(SPIRIT), 이슬람의 신령(JINN), 악마(DEMON), 불운의 저주(EVIL EYE), 마법(SORCERY)에 놓여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민속 무슬림의 우주관은 3층 적 우주관으로써 초월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있고, 그 사이에 각종 영적인 존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중간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속 이슬람의 주요한 요소는

- (1) 힘(능력) : 악마, 천사, MANA(초자연적인 힘)
- (2) 능력을 갖춘 사람 : 이맘, 마술사
- (3) 능력의 대상 : 주문(呪文, CHARM), 부적
- (4) 능력의 장소 : 메카, 성인의 무덤
- (5) 능력의 시간 : 무하메드의 생일, 성지순례 기간
- (6) 능력의 의식 : 코란을 이용한 기도 및 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입니다.

정통 이슬람이 사실 중심적이고, 삶의 궁극의 이슈인 천국, 지옥, 삶의 목적, 코란 중심, 제도적이고 정통에 기반을 둔다면 민속 이슬람은 감정적이고, 신비적이며, 일상생활의 걱정, 성공에 관심을 두며, 초자연적인 힘과 신비적인 것에 관심을 둡니다.



민속 이슬람이 크게 자리 잡은 이유는 이슬람의 신학에서 알라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은 멀리 있으며, 인간들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은 질병, 죽음, 시기, 불신앙, 상실감 등 매일 매일의 삶에 영향을 주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두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두렵게 만드는 힘이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여인들은 능력, 도움 그리고 거대한 영향력을 얻기 위해 민속적인 종교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때 민속 이슬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도할 때 교리적으로 접근한 전도 방식이 많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교리 체계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실패합니다. 민속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가르칠 때 복음의 수용성이 높습니다. 민속 이슬람 신앙을 가진 무슬림들에게는 내면적인 변화와 이런 무슬림들 안에 있는 신비적이고 무술적인 신앙을 이해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개개인의 총체적인 삶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글 김귀영 선교사 (인도네시아, 임마누엘 협력선교사)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유치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MATTHEW 16:16. A-MEN!”

아이들이 떼창을 하듯이 큰소리로 말씀 암송을 하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풍경. 매주 유치부에서 있는 풍경입니다. 아이들의 작은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씀은 듣는 교사에게나 전도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이 됩니다.

1) 다음 세대에 복음을 심는 유치부

유치부는 지난 9월 기준으로 37개월 이상의 아이들과 킨더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육부서입니다. 2018년부터 “다음 세대에 복음을 심는 유치부”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만들고 사역자와 모든 교사들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연령적 특성상

눈에 보일 복음의 성장이나 열매를 바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강절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 배웠지요?” 하면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언젠가는 싹트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쉬지 않고 16명의 교사들이 함께 기도와 사랑으로 복음을 심고 있습니다. 2018년의 포어는 교회 목회의 방향인 “성숙”에 맞추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유치부”로 정하여 모든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치부가 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2) 유치부 예배

유치1부는 김윤경 선생님, 유치2부는 김숙경 전도사님의 기도와 찬양 인도로 시작됩니다. 주일 아침 아빠, 엄마를 따라서 온 아이들이 선생님의 찬양 인도에 따라 하나님을 온몸

으로 찬양합니다. 매주 드리는 똑같은 찬양인데도 아이들의 표정은 늘 싱글벙글합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동하는 차 안에서든 언제나 아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갈 소망합니다. 찬양에 이어 헌금과 기도 시간 이후 전도사님과 말씀 암송을 합니다. 첫 주에 새 말씀 암송 구절을 대할 때는 서툴고, 전도사님을 따라 한구절 한구절 겨우 따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주중에 연습시키고, 예배 시간과 소그룹 시간에 함께 연습하면서 매주 마지막 주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슬슬 암송을 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들릴 수 있도록 더 큰소리로. 시작~” 이라는 전도사님의 신호에 맞추어 아이들이 떼창을 하듯이 큰소리로 암송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감동입니다. 이 말씀은 매달 한 말씀이 되고, 일년이면 12구절의 말씀이 될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룩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더 자라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 아이들을 붙잡아 줄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이 끝나면 아이들은 소그룹 활동을 합니다. 쉴 새 없이 재잘대는 아이들과 15분가량 오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아이들이 그 말씀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매주 아이들과 소그룹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아이들은 매주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3) 사순절 교육

올해 2월 14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아이들이 매일 성경 이야기를 하나씩 읽고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스티커 붙이는 것이 더 즐겁고, 부모님들의 숙제이지만, 이를 통해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 더 알게 되고



부모님들 또한 아이들에게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서 성령 충만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4) 유치부를 섬기는 분들

유치부는 교육부 위원회 김태영 장로님과 김숙경 전도사님, 김현주 부장 권사님과 황지영 팀장님을 비롯하여 15명의 선생님이 매주 80여 명의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유치부는 유치 1부와 유치 2부로 나누어지며, 유치 1부는 10:00시, 유치 2부는 11:45분에 새 가족실 맞은편, 유치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에는 교사 외에도 섬기는 분들이 더 계십니다. 바로 학부모 운영팀과 모든 학부모입니다. 우주양 팀장님을 비롯하여 12분의 운영팀 부모님들께서 매주 교사 간식을 챙겨주시고, 기도로 후원해주시고, 유치부의 모든 부모님이 매주 아이들 간식으로 섬겨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한 주 빠질 때는 1일 교사로 함께 유치부를 섬기고 계십니다. 유치부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이 바라는 한 가지는 매주 교회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유치부 아이들뿐 아니라, 교회를 처음 방문한 VIP 자녀들과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자들의 자녀들이 유치부에 잘 적응하고,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유치부를 위해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글 한연선 (산호세 평원 쿠킹 목장 부목자, 유치부 교사, 편집부) | 사진 안중훈





사랑의 띠로 하나된 서부평원 이야기

팔로알토와 산마태오, 밀브레 지역에 위치한 저희 서부 평원은 2개의 초원(총 12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출하지만, 결속력이 강해서 마치 오랜 친구들이 만나 끊임없이 담소를 나누는 것처럼 평원모임을 가질 때마다 나눔과 기도 제목이 넘쳐납니다. 무엇보다도 수시로 주고받는 카톡으로 묶여진 목자, 부목자님들의 활발한 문자들을 통해서 긴급한 기도요청과 공지, 알림, 그리고 근황을 나눕니다.

지난 2월에는 아이티 목장의 어느 자매님이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는 시간에 목자, 부목자님들이 지속적으로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셔서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원지기 민경진 장로님이 수시로 해외 출장을 가실 때면 카톡에 일정을 남겨주셔서 많은 목자, 부목자들이 잘 다녀오시라고 화답하곤 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나누는 카톡방의 대화 속에서 평원이 더 활기차고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됨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주 목장과 가정을 오존하여 목원들과 희로애락을 나누는 목자, 부목자들에게 우리 평원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장로님께서 집을 오존하여 자녀들까지 항상 40여 명 가까이 모이면 각 목장의 목원들의 근황과 기도 제목 그리고 목자, 부목자들의 어려움 등을 나누는 시간으로 4~5시간이 후딱 지나가서 헤어질 때는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지난번 모임 시, 어느 목장의 목자가 던져준 답답함과 어려운 상황은 저희 목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른 목장도 그러하듯 목장의 운영이 VIP에 초점이 맞춰져서 새신자들에게 많은 정성과 시간을 할애하지만, 목장모임을 단지 친목이나 혹은 아이들끼리 어울리게 하는 목적으로 참석하는 목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말씀 나누는 시간에 엉뚱한 화제를 끌어들이어서 주제를 산만

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주의 를 주거나 지적을 하면 혹시 상처를 받아서 목장에 나오지 않을까 봐 말도 못하고 속만 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마 그동안 목장을 이끌어 온 많은 목자들이 경험했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성숙으로 이르는 과정이 어렵고, 험난한 길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원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같이 나눌 때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받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되고, 평원 담당 김인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충전을 받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된 몇몇 구절을 기억하자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딤후 4:15)는 말씀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14) 하신 말씀처럼 목자들이 깊이 공감하는 것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성숙’이 아닐까 합니다. 너무 딱딱하고 판에 박힌 이야기만 쓴 것 같습니다. 사실 목장이나 평원모임이 마치 예배드리듯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재미있는 이야기, 도움 되는 정보 나눔, 그리고 자녀 양육 등 다양한 대화들이 모임을 살찌우게 합니다.

몇 년 전 목장을 통하여 나의 삶이 아주 운택해졌다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보낸 답장에 파안대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카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럽다. 확실히 미국은 땅도 넓으니까 동물들을 많이 키우나 봐, 네 목장에는 무슨 동물들이 있니?” 그 친구는 농담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죽마고우였음에도 ‘목장’이라는 용어가 생소했던 모양입니다. 한국에서는 ‘구역’이나 ‘셀’로 익숙하게 써왔던 용어여서 진짜로 가축을 기르는 목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만약 ‘목장’ 대신 ‘평원’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아마 그 친구는 내가 부자가 되어 평원 같은 넓은 집 마당에서 말을 타고 다니지 않을까 하는 더 큰 오해를 했을 겁니다.

올해는 평원모임을 교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집에 모여서 식사하며 공감을 나누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올해도 저희 평원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늘 사랑과 격려가 넘치고, 교회에서 언뜻 마주치는 목자, 부목자님들의 눈빛, 표정만 보아도 행복한 목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글 송옥영 (서부 평원 도쿄 목장 목자, 가정예배 섬김팀)



인공지능과 기독교의 미래 (기자의 눈)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기술이다. 인공지능은 이미 50년 이상 된 기술이지만 2010년 이후 급속도로 발전해왔다. 지난 2016년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알파고’가 한국의 이세돌 9단을 이기면서 인류에 큰 충격을 안겨주면서 본격적으로 대중에 인지되기 시작했다.

‘알파고’와 같이 극적인 등장이 아니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은 일상생활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라오는 뉴스 피드, 구글의 검색, 이메일의 스팸메일 자동 필터링, 아마존 알렉사 기반 스피커 예코, 구글 어시스턴트 기반 스피커 구글 홈, 애플 시리 기반 서비스 등도 모두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다.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여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자율주행차(SELF DRIVING CAR) 기술은 지각, 추론, 이해,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AI 기술의 총아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시애틀에서 일반 공개가 시작된 아마존 고(AMAZON GO)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그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인간의 고유 영역이었던 창작을 넘어서진 못한다는 예측도 있으나 최근엔 작사, 작곡, 그림 그리기도 AI 기술로 할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앞으로 수년 내 AI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일을 찾는 것이 더 빠르게 될 것이다. 특히 이같은 AI 기술은 상당수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술자, 기업가, 교수 등에 의해 착안됐거나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기독교계에서는 AI 기술 발전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는 상황인 듯하다. 성경 구절을 한두자만 입력해도 전체 구절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챗봇이 등장하는 것과 같이 긍정적 효용에 박수를 치기도 하고 성경이 모두 입력돼 주위 상황을 인지하면서 설교하는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는 등 에피소드식 예측이 나오는 정도로 보인다.

하지만, AI 기술의 발전은 기독교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종교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하는 주제다. 그동안 과학적, 기술적 발전은 종교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갈릴레오의 ‘지동설’은 1600년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치던 당시 기독교적 해석을 뒤흔들어 냈고 1800년대 등장한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념에 여전히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반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구텐베르크의 인쇄 기술 혁명이 일어나 성

경을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AI는 지동설, 진화론, 인쇄 혁명 등 과거 과학 기술 혁명에 비견될만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이 많다. 최근 작고한 스티븐 호킹 박사는 기계가 정서, 의식, 자기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 이처럼 완전한 AI 개발은 인류의 종말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암 촘스키, 일론 머스크 등 8000명이 넘는 AI 전문가들이 AI 개발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서명하기도 했다. 심지어 라이언 칼로 워싱턴대 법학과 교수는 “연방 로봇위원회를 만들어서 AI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하자”고도 주장했다. 미국의 유력 주간지 애틀란틱(The ATLANTIC)에서는 “AI는 찰스 다윈 (CHARLES DARWIN)의 종의 기원 (ORIGIN OF SPECIES) 이후 기독교 신학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AI가 기독교와 교회에 미칠 영향은 이처럼 ‘긍정적’ ‘부정적’으로 구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광범위할 수도 있다.

창세기 2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말씀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여 영혼과 육신을 소유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믿는다. AI는 기독교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두뇌’를 디지털 방식으로 만들어 내면 AI에도 영혼이 있을까, 인간을 닮은 AI가 만들어내는 지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란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AI에게 영혼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예수님, 성령을 AI가 인지하고 이를 저장할 수 있을지, AI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지, AI가 스스로 판단하는 ‘말씀’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지 하는 철학적 물음이 제기될 것이다.

우리 교회 주변은 바로 AI 기술 개발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다. 반경 15마일 이내 AI 개발을 이끌고 있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이 포진해 있다. 때문에 임마누엘 성도들은 AI 진화를 이해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그래서 더욱 중요해 보인다.

글 손재권 (남부 평원 브니엘 목장,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독교의 위기를 가져오는가? (목회자의 눈)

인공지능(AI)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발되었을 때, 과연 인간의 감정과 매우 흡사한 단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단계까지 담아내는 시대가 올까? 모두의 관심사이다.

제임스 베렛은 지난 10년간의 인공지능 실태를 조사한 후 인공지능에 의해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것을 우려한다. 그는 인공지능이 2045년경이 되면 '초인공지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의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본다. IBM 왓슨이나 GOOGLE 알파고 수준의 '약한 인공지능' 단계에서 '강한 인공지능'의 단계가 되면 "효율성과 자의식을 갖게 되고, 자기 보존 욕구와 자원 획득, 그리고 창의성"까지 지니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단계가 되면 인공지능 기술의 폭발적 발전이 일어나면서 마침내 세 번째 단계인 '초인공지능'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베렛에 따르면 이 단계가 되면 기술 변화의 속도와 영향력이 너무나 커져서 인간의 존재 양식이 질적으로 달라지리라 전망한다.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나고 기계와 인간이 결합한 새로운 인류의 시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많은 SF영화들을 보면 호모 사피엔스는 이미 그런 시대를 예측하며 인간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촉발한다.

손재권 기자께서 제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도전이 현실화되면 기독교에도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지동설을 마주했던 종교 재판의 시기나 다윈의 진화론에 대처하는 기독교의 과거를 회상해 보면 될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의 도전들은 종교의 시대에 종말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내고 창조주가 지으신 세계의 장엄함을 밝혀내는 동반자 관계임을 기억해야 한다. 일찍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며,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SCIENCE WITHOUT RELIGION IS LAME, RELIGION WITHOUT SCIENCE IS BLIND)이다.

맹신 단계의 신앙도 우리는 부추겨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일반적인 유물론적 관점에 치우쳐서 종교의 무한한 세계를 부정하는 것도 절름발이에 불과한 과학이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종교 없는 문화가 없었던 이유는 과학적 지식에 대한 인간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본질적인 그리움 때문이다.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백'(VACUUM)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과학이 무한대로 발달하고 인간의 감정과 영혼까지 흡사한 단계를 지닌 '초인공지능'이 탄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인간의 영혼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거나 하는 수준의 복제는 불가능하다. '창조의 생기'를 물어넣으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영혼이나 감정만으로 우리는 인간과 흡사한 '초인류'가 탄생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육체는 사라지고 영혼만이 남는 존재를 우리는 사람이라 부르지 않는다. 초기 기독교가 마주했던 최초의 이단 사상은 바로 '영지주의'였다. 육체에 비해서 영혼의 우월성을 주장했던 영지주의 사상은 지금도 기독교 신앙이 대응해야 하는 핵심적 이단이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말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지니고 우리와 진정한 사귀기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우리는 인간의 오감을 동원한 생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목회자의 기능을 가진 시의 등장은 부분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모든 지식과 정보와 대응 방식을 입력한 시가 누군가를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격려와 포용을 통해 느끼는 정서적, 영적 위로를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뛰어난 강의 로봇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를 통해 인격체와 인격체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며 영적인 '울림'을 나눌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어떤 정보나 지식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가 지식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마침내 성육신하셨고,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다. 생물학적인 인간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인공지능이 어찌 지식과 정보만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반응할 수 있겠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은혜의 순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 박성호 목사 (북부 평원, 화요여성 예배, 신앙위원회 담당)

만약 홍해가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
오른쪽에는 광야
뒤에서는 애굽군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피터 알라드

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전도 체질이 되려면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는 것이 능력이다. 사도바울이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바울은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다. 만약 바울이 복음 전하는 열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전 세계의 복음화는 대단히 늦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멸망했을지도 모른다.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행 5:42)

날마다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이다.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환경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결국,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또한, 전도는 영적 예민함이 있어야 한다. 무르익었을 때를 판단하여 거둬들여야 한다. 농부가 곡식이 익었는데도 거둬들이지 않으면 새들이 와서 먹어 버리든지 땅에 떨어져 헛일이 되는 것이다.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잘 진단하여 끌어당겨야 할 때는 힘차게 당겨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가 끝이고 그만하라고 하실 때 그만하면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문제이며, 그렇게 되면 지쳐 버린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전도가 되는 교회는 이렇게 말한다. “전도 됩니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지만 전도가 안 되는 교회는 이렇게 말한다. “전도! 그거 해도 안 됩니다. 재정도 없고 인재도 없고 이제 지쳤어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느냐와 중간에 포기 하느냐의 차이이다. 어느 우물을 파는 기술자가 있었다. 이분이 우물을 파면 100% 물이 나오고 성공했다. 때마침 어떤 농부가 우물이 필요하여 가서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팠다 하면 물이 나오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다. “저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고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도 주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전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능력이다. 전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불신 영혼이 있는 한 계속되어야 한다.

편집부 정리

출처 | 전도는 축복이다(김병완 저) 중에서



매주 금요일이면 이곳 베이 지역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셔서 이곳으로 보내셨기에 만나게된, 가족보다 더 가까운 목장 식구들을 위해 집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만남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저녁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고, 아이들이 몰려와 집을 난장판을 만들고,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어 허리가 아파도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교제로 인한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도와 감사로 감당합니다.

이곳에 온지 일년 반이 지나가며 그동안 만나 뵈었던 목자 부목자님들의 헌신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초원모임을 함께하며 목자 부목자님들의 나눔을 들을 때면 저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랑스러움과 존경심으로 가득 합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에도 목원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고, 그들을 향한 기도와 사랑, 섬김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어가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합니다. 특히나 부목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 것이라 확신합니다. 집을 오픈하시고 목장모임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으시길, 그리고 모임 때 마다 웃음과 눈물의 나눔이 늘 풍성하시길 기도합니다.

매주 음식을 준비하시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어렵지 않은, 재료가 너무 비싸지 않고, 그러나 맛있는 레시피를 찾아 헤매느라 늘 머리가 아프실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간단한 일 분식 해물전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이름은 “오코노미야끼” 라고 하고요, 우동이나 덮밥 등 일식을 드실 때 잘 어우러지는 음식입니다. 꼭 우리의 해물파전 비슷하고요, 다만 양배추가 들어가 달달하고 씹는 맛이 있는게 특징입니다. 크게 부치셔도 되지만 한 입 크기로 부치시면 서빙하시기 더 편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글 성경하 사모 (북부 평원)

OKONOMIYAKI RECIPE

준비물

- 오코노미야끼 가루 1컵
- 양배추 보통 크기 1/4개 얇게 채썬것
- 새우와 오징어 잘게 썰은것 1컵
- 파다진것 1/2컵
- 계란 2개
- 물 3/4컵
- 가다랑이포
- 오코노미 소스
- 마요네즈



만드는법

- 오코노미야끼 가루, 물, 계란을 섞어요
- 반죽에 해물과 파를 섞어요
- 마지막으로 양배추를 듬뿍 넣어 줍니다
-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팬을 달궈요
- 적당량의 반죽을 올려 부쳐 냅니다
- 마요네즈와 오코노미 소스를 듬뿍 뿌려요
- 마지막으로 가다랑이포를 위에 뿌려줍니다

잠깐만!

- 너무 오래 반죽을 젓지 마세요
- 양배추가 너무 많은가 싶은 것이 맞아요
- 팬에 부칠 때 전을 누르지 마세요
- 오코노미 소스를 많이 뿌려야 간이 맞아요
- 가다랑이포를 생략하면 맛이 없어요
- 해물 대신 베이컨을 넣어도 좋아요



하나님은
사역을 맡기시려는 종들에게
무엇보다 성결을 요구하신다.

-헤딩거



글 그림 임명진
(산호세 평원, 호산나 찬양대 베이스 팀장)



자신의 발을 내밀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림고 외로워 보였던 이들은 거의 모두가 유안진 씨의 수필 '지란지교를 꿈꾸며'에 나오는 그런 이상적인 친구를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치아에 낀 고춧가루를 훔보지나 않을까, 씻지 않은 얼굴을 보고 놀래지나 않을까, 연약한 나의 감성을 보고 민망해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포장하고 약점을 감춘 채 고슴도치처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가시를 높이 세워서 살아갑니다. IT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라 내놓을만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실리콘밸리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남들처럼 최고가 아닌 자신의 모습, 나약한 존재에 불과한 자신의 부끄러운 품성이 행여나 남들에게 드러날까 봐 남몰래 보호장치를 위해 갑옷을 두르고 가시를 세우는 모습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결된 한 몸입니다. 적어도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의 몸이 되어 살고 있는지 묻는 작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천국의 그림자를 맞보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도 잘 알듯이 오늘의 많은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이 시대의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냄새나고 입 냄새가 좀 나는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 주신 말씀 아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작은 교회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오래된 친구 같은 허물없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흔히 책임, 상호 책임성이라고 번역하곤 하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잘못을 따지는 상황에서의 책임의식을 말합니다. 저는 영문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저 나름의 해석 방법으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단어는 Account + Ability,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담은 리포트(재정에 관련된 매우 사적인 영역을 포함)를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닐지요. 서로를 향한 진솔한 책임의식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꼭 필요한 시작입니다. 서로의 사사로운 영역을 기꺼이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은 진정한 친구를 얻는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친구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내가 약점을 보였을 때 그가 나를 배신하고 약점을 악용한다면? 나만 바보 되고 끝날 수는 없지. 내가 이 이야기를 나누었다가 나중에 밖으로 소문이나 돌고 나면 나만 바보 되는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누군가에게 다가서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을 보내신 고난주간(Passion Week)의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날(Maundy Thursday)로 기억되어 오늘날도 그 전통을 이어가곤 합니다. 리더를 세우거나 헌신을 다짐하는 예식이 있을 때 종종 우리는 세족식을 통해 그 정신을 되새기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3~20을 읽어보면 그 장면이 생생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을 먹던 중에 겹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잠시 저항하지만, 기꺼이 주님은 다 씻기시고 맙니다.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요 13:14). 우리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보며 '나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합당한 다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여기에 더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 참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발을 씻으려 할 때 기꺼이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어주려 하나? "나는 당신의 발을 씻길 수 있지만, 당신은 나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발은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고 지금은 너무나 더러워서 차마 양말을 벗을 용기가 내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천성적으로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리는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내밀고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타인을 섬기기만 하는 사람은 위대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발을 씻기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의 발을 내밀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 더러운 삶의 상처들을 기꺼이 내미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누군가가 나의 부끄러운 발을 만져주고 씻겨주도록 맡길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를 향해 책임지는 마음, 나의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고 맡기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글 박성호 목사 (북부 평원, 화요 여성예배, 신앙위원회 담당)

작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생체시계의 비밀을 밝혀낸 미국의 과학자 3명이었다. 이들은 24시간을 주기로 생성과 분해를 반복하는 몇 가지 단백질과 이에 관련된 유전자를 발견했는데, 이를 통해 비로소 생명체가 밤낮에 따라 활동과 휴식을 다르게 하는 메커니즘, 다시 말해 사람이 밤에 졸리고 아침에 눈이 떠지는 이유가 밝혀졌다. 생체시계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행동, 잠, 호르몬 수위, 체온, 신진대사와 같은 중요한 기능들이 이것에 의해 통제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생활습관이 생체시계와 만성적인 불일치를 보일 때 다양한 질병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밤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보약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밤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외부 환경이나 생활 습관, 불면증 등에 의해 숙면은 방해받기 쉽고, 많은 수험생이나 직장인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경험한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비교적 흔하지만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수면 부족을 통해 만성 피로, 집중력 장애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가지 후유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질환이다.

수면 무호흡증이란?

수면 무호흡증이란 수면 중에 호흡이 10초 이상 멈추거나 줄어드는 현상이 한 시간에 5회 이상일 때를 말한다. 수면 무호흡증은 보통 코골이와 동반되는데 코골이 환자의 약 50~70%가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다고 한다. 수면 중에 상기도의 좁아진 부위를 지나는 공기가 소용돌이를 만들거나 주위 점막을 진동시키면 코골이가 생기는데, 좁아진 정도가 심해서 그 부위가 막히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한다. 상기도에서 후두개, 혀뿌리, 편도, 목젖 및 연구개 등이 특히 좁은 부위인데, 낮 동안에 상기도를 넓혀주던 근육의 긴장도가 수면 중에는 떨어지게 되고, 이때 바로 누운 자세가 되면 혀나 목젖 등이 뒤로 처져서 공간이 좁아지게 된다. 이런 현상은 비만한 사람에게 더 잘 생길 수 있고, 턱이 작거나 혀나 편도가 크거나 목젖이나 연구개가 쳐진 구조를 가진 사람에게서 흔하다. 또 술, 담배, 진정제와 같은 약물 등은 상기도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려서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문제점은?

수면 무호흡증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우리 몸에 이상을 일으킨다. 첫 번째는 숙면을 방해하는 것으로 시간상으로는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얇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학습 및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실수나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며 심한 경우 불안정한 심리상태, 우울, 성장 장애, 성 기능 장애 등이 초래된다. 두 번째는 수면 중 무호흡으로 인한 산소 부족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는 자율신경계의 이상과 이로 인한 부정맥, 고혈압, 심근 경색,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환의 발생 빈도를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높인다. 특히 고혈압과의 연관성이 높는데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약 50%에서 고혈압이 동반되고,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 고혈압 환자의 83%가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장애가 동반되기도 하고, 유소아의 설명되지 못하는 급사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은?

일반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은 중년의 남자에서 자주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심한 코골이와 함께 아침에 두통이 심하거나 낮에 많이 졸리는 증상이 있다면 의심해야 한다. 또 비만한 경우,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의심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코골이와 함께 성장부진, 집중력 장애, 과잉행동, 야뇨증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의심해야 한다.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위한 검사는?

수면 무호흡증의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이 되는 폐쇄 부위를 평가하는 검사로 편도, 혀, 목젖뿐만 아니라 상기도 내시경을 통해 코안과 인두 벽, 혀뿌리, 후두개 등 목 안 깊숙한 부분까지 검사한다. 다른 하나는 수면 무호흡증의 유무 및 정도를 알기 위한 수면다원검사로 뇌파, 근전도, 안전도, 심전도 및 여

러 종류의 호흡 검사장치 등을 통해 기록된 수면을 분석하는 검사이다. 이 검사는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행해지게 되는데, 단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판별하고, 수면 무호흡증에서 중추성과 폐쇄성,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이다. 이는 치료법을 결정하거나 치료 전후의 결과를 비교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는?

우선 체중감량을 해볼 수 있는데 체중을 5kg 줄이면 수면 무호흡증이 30% 정도 호전된다고 한다. 앞으로 누워 자도록 고안된 여러 체위 조절기구나 턱 또는 혀의 문제가 큰 경우에 이용되는 구강 내 장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술이나 지속적 양압기를 통해 치료가 이루어진다. 수술은 상기도의 좁아진 부위를 넓혀주는 것으로 주로 편도절제술과 입천장 즉 연구개 부위를 올려주는 수술을 함께 시행한다. 경우에 따라 코 안이나 혀뿌리에 대한 수술을 함께 시행하기도 한다. 지속적 양압기는 산소마스크처럼 생긴 기구를 이용하여 잠자는 동안 지속적으로 코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유지시키는 장치이다. 이는 상기도의 폐쇄 부위가 광범위하여 수술의 성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치료법으로, 국제수면학회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치료 효과는 매우 우수하여 90% 이상의 환자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개선된다. 최근에는 설하(혀밑)신경 자극 장치라는 이식형 치료기도 개발되어 이용되기 시작했는데 수면 중 무호흡을 감지하는 센서와 본체, 설하신경을 자극하여 혀를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은 평생의 1/3 정도를 잠에 투자한다. 잠은 우리가 평생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이고 낮의 활동도 좌우한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잠과 건강과 성공과 행복을 빼앗기는 일이 절대 없기를 기도한다.

글 이태훈 (서부 평원 이고니온 목장, 이비인후과)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분들을 대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

01

휠체어에 기대지 않으며, 휠체어에 앉은 분에게 물건을 들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02

휠체어를 밀어드릴 때는 반드시 지시에 따라하며, 내리막 길에서는 앉은 분이 낙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니다.

03

휠체어가 다니는 램프와 통로는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를 합니다.

04

휠체어에 앉은 분이 쉽게 집을 수 있도록 물건이나 비품들을 배치합니다.

05

휠체어에 앉은 분과 대화를 할 때는 의자에 앉은 높이를 맞추고, 의자가 없을 때는 조금 거리를 두어서 고개를 많이 젓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06

보행이 쉽지 않은 분들이 복잡한 건물 내를 가장 손쉽게 다닐 수 있도록 안내 도면을 비치합니다.

07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숙지하고, 안내 해드립니다.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는 분은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양팔을 모두 사용합니다. 따라서 팔을 붙들거나 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08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는 분이 문을 열 때는 돌아서서 몸으로 문을 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문을 갑자기 열어서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 자리를 권할 때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 앉는 높이가 조금 높은 의자가 좋습니다.

09

휠체어나 보행보조기구는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10

휠체어를 밀거나 문을 열어주는 등의 도움을 주고 싶을 때는 장애인 본인에게 물어본 후 돕습니다.

신임 네 장로님들과 함께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내가

저의 회개는 아직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지 못했을 때 회개만 하면 용서해주신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손해볼건 없지 하는 알팍한 계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죄사함 받으니 좋은 거고, 진짜가 아니면 뭐 회개하는 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큰 힘이 드는 것도 아니니 일단 하고보자 생각했습니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싶어 진지하게 무릎 꿇고 시작했지만, 처음 회개는 일본도 안 되서 끝났습니다. 별로 죄도 아닌 거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그 날 이후 생각나는 죄는 점점 늘어갔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죄가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게다가 회개했는데 용서 받았다는 느낌은 없고 돌아킬 수도 갚을 수도 없으니 어쩌나. 급기야 죄에 눌려서 몸부림 치며 울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장면을 보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나때문에... 내 죄때문에... 그 후로 제 눈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말씀 읽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찬양하다 울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정결해지기 위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되다니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 앞에 엎드려 감출 것도 속일 것도 없이 모든 걸 다 쏟아낼 수 있다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부끄러운 것 감추고 싶은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 의와 자기 율법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다. 하나님 없이도 바르고 선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마음 속으로 늘 판단의 자리에 서서 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밖에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던 저의 죄성은 가정에서 고소란히 드러났습니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불같이 화를 내는 저로 인해 저희 집은 늘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 변화되어보려 했지만 매번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기까지 나는 늘 희생자고 흠 없는 피해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인생에 왕노릇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다른 사람 인생에까지 왕노릇하고 있었고, 말로 베고 눈으로 찌르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선의를 가장한 구제불능의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를 목이 쉬도록 울부짖으며 회개하게 하셨고, 무릎이 닳도록 꿇리셨고 마룻바닥을 파고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처절하게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을 다른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저를 보는 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어느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다른 사람과 사는 것 같다”고. 얼마 지나서 또 말했습니다. “아내를 예수님께 시집보낸 거 같다”고... 할렐루야!!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구나를 경험할 때마다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



습니다. 구제불능인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살게 되었구나 경험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물론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마다 “너는 이미 죽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을 진리 삼을 때 그것이 실재가 되게 하셨고, 그 경험이 쌓여 확신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영과 육의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재발 치료까지 했지만 다시 커지기 시작한 임파선암이 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되었습니다. 그러기까지 2년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습다. 저는 기도에 빛진 자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해야하는 자입니다. 티끌만한 죄도 남지 않게 회개하게 하셨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놀라운 은혜로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셨으니 어찌 아니 기쁘지요.

저는 요즘도 잘 읊니다. 폭포수 같이 부어지는 사랑과 은혜에 평하고 터져흐르는 눈물을 도무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 웃습니다. 주님 생각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앞뒤 맥락도 없이 울었다 웃었다 누가 보면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겠지요. 무슨 상관이었습니까. 저는 주님으로 인해 넘치게 기쁘고 벅칩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죽어서 천국뿐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어서 부활뿐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찬송이 내 노래가 되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글 정은미 (남부 평원 코스타리카 목장, 1부 찬양팀, 예수님 영접 모임팀)

“Identity set in christ, not in worldly success”

I GREW UP IN THE CHURCH AND EXPERIENCED SUNDAY SCHOOLS, YOUTH GROUP FELLOWSHIPS, AND RETREATS LIKE EVERY OTHER CHILD. BUT I ONLY KNEW HOW TO PLAY CHURCH, AND NEVER TRULY UNDERSTOOD WHAT BEING FOUND IN CHRIST MEANT. I GREW UP WITH MY IDENTITY ROOTED IN ACADEMIC PERFORMANCE AND HOW I FARED AGAINST MY PEERS, SO YOU CAN SEE HOW MY WORLD CAME CRASHING DOWN WHEN I WAS DROPPED BY MY UNIVERSITY TWICE.

I WAS ADMITTED INTO PURDUE UNIVERSITY AS AN ACCOUNTING MAJOR IN 2005; I CHOSE MY MAJOR ON THE BASIS THAT IT WAS WHAT MY FATHER STUDIED. IT WAS MY FIRST TIME AWAY FROM HOME AND IN A NEW STATE. THE NEWFOUND FREEDOM AND MY LACK OF INTEREST IN ACCOUNTING ALLOWED ME TO IGNORE MY RESPONSIBILITIES AS A STUDENT, AND I FOUND MYSELF MISSING A LOT OF CLASSES. I FOUND A COLLEGE MINISTRY AND CHURCH QUICKLY, AND THEY SOON BECAME A HIGHER PRIORITY OVER MY STUDIES. EVENTUALLY, MY NEGLIGENCE OF GRADES AND EXAMS CAUGHT UP TO ME. I WAS DISMISSED BY THE UNIVERSITY AT THE END OF MY SOPHOMORE YEAR AND FORCED TO WAIT SIX MONTHS BEFORE READMISSION. I PUSHED THROUGH FALL SEMESTER OF MY JUNIOR YEAR AT A LOCAL COMMUNITY COLLEGE BEFORE BEING READMITTED AT PURDUE. BUT I DID NOT LEARN MY LESSON FOR LONG, AND WAS DISMISSED AGAIN BY SUMMER OF 2008.

OVERWHELMED BY GUILT AND SHAME, I CAME BACK TO CALIFORNIA TO FINISH SCHOOL AT SAN JOSE STATE UNIVERSITY. I STRUGGLED COPING WITH FAMILY'S DISAPPOINTMENT, AND FEARED PEOPLE'S JUDGMENT OF MY TRACK RECORD. I FELT LIKE A FAILURE IN EVERY SENSE. I WAS ASHAMED BUT ALSO ANGRY AT GOD; I WAS ANGRY THAT HE WOULD ALLOW ME TO FALL THIS HARD. PRIOR TO MOVING BACK HOME, I TOLD GOD I WANT NOTHING TO DO WITH HIM ANYMORE. I BECAME RECLUSIVE AT SAN JOSE STATE AND EMBRACED MY LONELINESS. BUT GOD HAD NOT GIVEN UP ON ME!

THE LORD WAS FAITHFUL WHEN I WAS NOT; HE DREW ME TO A COLLEGE MINISTRY ON CAMPUS IN OCTOBER OF 2008, WHERE I REDISCOVERED WHAT IT MEANS TO BE A CHRIST FOLLOWER. I LEARNED THROUGH THE COLLEGE PASTOR THAT I AM NOT DEFINED BY MY GRADES OR ACADEMIC ACHIEVEMENTS AND FAILURES. GOD ALONE REDEEMS THE BROKEN AND CALLS ME HIS OWN, BECAUSE JESUS HAS RESCUED ME OUT OF MY BROKENNESS AND SINS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I SLOWLY BECAME LESS AFRAID OF MY COLLEGE FAILURE AND MORE CONFIDENT IN SHARING THE STORY AS A TESTIMONY TO HOW GOD IS OUR EVERYTHING AND SOURCE OF LIFE AND JOY. LOOKING BACK TODAY, I THANK GOD FOR ALLOWING ME TO FAIL AND TAKE SEVEN LONG YEARS TO FINISH COLLEGE. HAD HE NOT LET ME FALL IN ORDER TO DRAW ME OUT OF THE DEPTHS OF MY BROKENNESS BY HIS HANDS, I WOULD NOT BE TRULY SAVED AND MARKED BY HIS GRACE TODAY. PRAISE HIM FOR HIS STEADFASTNESS, FOR HE IS GOOD INDEED!

BY_ ERIC HOUNG (EM, PRAISE TEAM LEADER)

저는 교회에서 자라며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교 활동과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알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학업 성적이나 또래 사이에서 얼마나 잘 하는지에 저의 정체성이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두 번이나 낙제했을 때는 저의 온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2005년, 회계학 전공으로 퍼듀대학에 합격했는데 아버지가 공부하신 것에서 영향을 받아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집을 멀리 떠나 새로운 주에서 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자유와 회계학에 대한 관심 부족 때문에 학생의 책임을 망각하고 수업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곧 대학 선교부와 교회를 찾았고, 금세 공부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결국, 성적과 시험에 소홀했던 저는 달미를 잡고 말았습니다. 2학년 말에 학교에서 낙제 판정을 받고 재입학 전까지 6개월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퍼듀에 재입학할 때까지 동네 2년제 대학에서 3학년 가을학기 수업을 들었는데도 그 교훈은 오래 가지 못하고 2008년 여름 다시 낙제하게 됐습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산호세 주립대학에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가족의 실망을 감당하기가 힘들었고, 사람들이 제 실적을 판단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모든 면에서 저 자신이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우면서도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락까지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 화가 났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앞으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지내겠다고 하나님께 말해버렸습니다. 산호세 주립대에서 저는 외부와 단절된 채로 외로움을 끌어안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믿음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2008년 10월, 하나님께서는 저를 캠퍼스 내 대학 선교부로 인도하셨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내 목사님을 통해 성적, 학업 성과나 실패의 경험이 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 자신의 삼함과 죄로부터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넘어진 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십니다. 저는 실패한 대학 생활에 대한 두려움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



시고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간증하기 위해 제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와서 돌아켜보면, 제가 대학 생활에 실패하고 대학을 마치는 데 7년이 걸리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 깊은 상처로부터 손수 저를 끌어내기 위해 실패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치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글 에릭 HOUNG (EM 찬양팀 리더)

번역 황인주 (동부 평원 과달라하라 목장, IT 선교부 교육팀장, 편집부)

하나님 자녀가 된 짬뽕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어느 소수 민족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줄 수 있을까?”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어린이 선교팀_굿 뉴스 클럽에서는 기도로 준비해왔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_잠언 16:9



서니베일 SERRA PARK 부근에 네팔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것을 알기까지 미장원과 히말라야 모모(만두) 트럭, 또한 구글을 통해 마운틴 뷰에 있는 네팔 음식점을 찾았다. 센카라는 네팔 주방장을 찾아 알게 된 세라 팍에서 처음 만난 분은 잠시 방문 중인 짬뽕라 할머니와 딸인 바가와티였다.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우리를 간절하게 집으로 초청하여 맛있는 네팔 커피도 타 주었다. 짬뽕라와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친해지기 시작했다. 바가와티는 남편 프라카쉬와 세 자녀가 있었고, 바로 위층에 사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알려 주었다. 2층에 올라 갔을 때 수니타 자매는 금식 중이었고, 자기 부부가 이 지역의 유일한 크리스천이며 네팔 힌두교인 이웃들이 조심스러워 왕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네팔에서 12살 때 예수를 믿고 숨어다니기도 했다는 얘기를 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고 현관문뿐 아니라 마음의 문도 열어 주셔서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다.

우리 팀은 목요일마다 모여서 집집이 찾아다니며 아이들을 크리스마스에 초청하기 시작했다. 길에 지나가는 아이들과 엄마들, 밖에서 노는 아이들이 눈에 띄면 가서 엄마들을 만났고 네팔회 회장도 만나서 교회 수건과 잡채 등등을 주며 네팔회에 크리스마스 파티 광고를 내 달라고 부탁을 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파티가 시작되었다. 어린이 찬양 “GO TELL IT ON THE MOUNTAIN”으로 시작하여 복음 제시와 게임, 선물 등으로 이어졌다. 꽤 쌀쌀하고 바람 부는 날이었음에도 10명이 훌쩍 넘는 네팔 어린이와 엄마들, 우리 선교팀과 유스들까지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네팔 어린이 4명의 예수 영접과 함께 네팔 커뮤니티에 복음의 씨는 뿌려졌다.

3월 3일 오후 3시, 우리 국내 선교부에서 실시한 PRAYER WALK 때에 “예수 이름 찬양” “능력의 이름 예수” 등 몇 곡의 찬양을 부르며 수니타 자매 부부와 함께 마음을 합해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 드렸다. 그 주위 700명 네팔인을 주님께 인도해달라고... 특히 짬뽕라가 네팔로 가기 전에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비가 금세 그친 푸른 하늘은 주님의 창조를 더욱더 드러냈고 거짓 영인 힌두교의 무력함도 더욱더 드러내는 듯하였다.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기 섭섭해하는 짬뽕라 할머니가 열흘 후 네팔로 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가득하여 이틀 후인 월요일 저녁에 팻대로 모였고 수니타 자매에게 통역을 부탁했다. 손자 손녀들도 오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우리 팀 집사님이 재미있는 예화부터 시작하자 수니타는 열심히 통역하였고, 우리 팀원들은 옆에서 계속 짬뽕라의 예수 영접을 위해 기도하고... 짬뽕라의 눈빛이 점점 복음을 듣는 것 같았고 고



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복음을 끝까지 듣고 난 후, 그녀는 수니타 자매에게 영접하겠다고 말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_로마서 10:9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 잃어버렸던 힌두 할머니가 주님을 영접하였으니 우리는 긴장감이 풀리고 안도의 숨을 쉬었다. 아들이 여섯, 딸이 셋인데 그중 한 아들이 네팔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처음 얘기하셨다. 네팔 성경책을 갑자기 구할 수 없어 우리 팀 권사님이 인터넷에서 네팔어 사영리를 프린트해서 예쁜 색종이에 붙여 네팔에 가서 읽으라고 드렸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_고전 1:21

그날밤, 여러 신을 섬긴다는 바가와티의 남편 프라카쉬 형제가 큰 아들 제임스를 우리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먼저 부탁을 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라웠다. 주일날 제임스를 데리러 갔지만, 어딜 가야 한다고 안 오려는 것을 데리고 오는 것도 영



적 전쟁이었다. 마침내 와서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있었고 스낵도 먹고 소그룹에도 참여하였고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했다. 알고 보니 제임스는 홈스테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우리 교회 유스부에 같은 학교를 다니는 두 학생과 연결이 되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과정마다 느낄 수 있었다. 짬뽕라로 인해 우리 교회로 인도된 제임스를 보며...

글 최재희(북부 평원 ROGELL 목장, 주일예배 중보팀, 어린이 선교팀)

인도 단기선교 갈무리

사실 언젠가 한 번쯤은 가보리라 했던 선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선교지 중에 인도로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인도'라는 나라는 저에게는 별로 호감 가지 않는 나라였고, 주변에 암체 같은 인도인들을 보며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목장이 구성되면서, 같은 초원의 한 목자님의 권유로, 인도 백숙경 선교사님을 목장 후원선교사로 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도와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목사님을 통해서, 목장 선교가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직접 방문하여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선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부담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사람들 알미워서 싫는데...'. 가고 싶지 않아 고민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했던 요나를 떠올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인도 단기선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심하고 준비하는 중에, 우려하던 회사 일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선교 가는 기간이 새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주요 일정과 겹쳐서 이 기간에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디렉터가 직접 저에게 전담해서 진행하라며 부탁한 상황이라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마침 이 기간에 휴가를 써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을 떼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난국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출발 1달을 남긴 시점에 선교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미리 처리해 둘 뿐 만 아니라, 선교 기간

에 잠시 업무를 맡아 줄 대리자를 세워두면 되겠다는 확신이 기도 중에 들게 되었고, 이를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알고 응답하심을 따라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선교 가기 전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일하고 있는 나 자신도 놀람도록 순조로웠습니다. 반대하실 것 같았던 회사 디렉터도, 업무의 진행 상황을 만족해하면서 흔쾌히 휴가 결제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교 기간에 대비한 업무 대리자 선정 및 인수인계까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회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선교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신묘막측하게 인도되어 간 선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저의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팀은 4~5명이 조를 이뤄서, 평안의 사람 집을 방문하고 개인 간증, EVANGEOUBE 복음 제시, 결신자 가정용 통한 가정교회 세워주기와 중보기도만 합니다. 일절 아무런 물질도 선



물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활이 어려워서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유 기도를 같이 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게도 병 고침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기도 중 뒷목의 통증 사라졌다며 집에 있는 딸까지 다시 데려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가족에 불화가 많아서 울화병으로 고생하시던 아주머니가 기도 중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울화병이 갑자기 사라졌다며 고맙다는 눈물의 인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선교팀은 마치 사도들처럼 마을마다 방문하며 복음을 선포하였고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10명 중에 9명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조별로 마을 방문시에 렌트카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만나는 운전기사에게도 전도합니다. 초면부터 우리를 경계시 하는 운전 기사에게 마지막 날, 마을에서 복음 전도시, 와서 같이 들어 보라고 간절히 초청하였고 저희의 간증과 복음을 유심히 듣다가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던 바로 그 현장에 와 '서 있는' 듯했습니다. 인도에는 참으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의 95%가 우상숭배로 신음하고 있는 인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기선교에서 복귀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에 대한 저의 악감정들을 모두, 성령의 불로 불살라 놓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인들이 불편했는데 그 감정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안전하게 잘 지켜주셨습니다. 도마처럼 확인하고 싶어서 복귀 후 디렉터에게 물었더니, 주저하지 않고 바로, "YOU HAVE PREPARED EVERYTHING PERFECTLY BEFORE YOU LEAVE," 라고 답변하더군요. 참으로 AWESOME 하나님이십니다.

글 신상훈(북부 평원 인도남부 목장 목사, AWANA 교사, 호산나 찬양대)

일꾼을 세우시는 훈련의 터

지난 12월 멕시코 단기선교는 한해를 마무리하며 주님이 제게 보내신 한편의 위로 편지였습니다. 처음에 막연히 주님이 멕시코에서 행하실 일만 생각하던 저에게 단기선교를 준비해가며 주님께서 저와 유스를 비롯한 모든 팀원 한 분 한 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목도케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번 선교여행은 저희 팀을 주님의 계획안에 성장시키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청자가 없어 취소될 예정이던 멕시코 단기선교에 가까스로 모인 세 가정이 순종의 마음으로 참여한 작은 선교팀이었습니다. 적은 참가 인원으로 멕시코 신학교 섬김 사역을 주로 하고, 한국음식 대접과 찬양, 선물 상자 전달과 신학과 음악 강의 등을 위주로 조출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의 계획 속에 참여하는 가정들이 늘어나며 떠나기 마지막 한 달 전에는 총 6가정, 22명의 팀원이 생기고 11명의 자녀가 함께 떠나는 놀라운 가족팀이 생겨났습니다.

참여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 저희의 사역 범위 또한 넓어져서, 기존의 사역 외에도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바블 스튜디오와 마약 재소자들을 방문하고 섬기며, IT 강의와 신학교의 타일을 깔고 보수하는 일 등 참으로 광범위한 일들이 맡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던 팀원들도 매주 만남과 큐티 공동방을 통한 묵상 나눔을 통해 점차 서로를 알게 되었고, 특히 두 번 가정에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함께 스페인어 찬양을 연습하면서 모두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특히 유스팀을 담당한 저는 처음 부모님을 따라 가지못해 참여했던 유스들이 매일 말씀을 나누며 서서히 변화하여 자신들의 리더를 세우며, 자체적으로 모여 스페인어 찬양을 연습하고 어린이 성경 잔치를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주님의 군사로 변해가는 유스들이 선교지에서는 복음 큐브를 통해 너무나 적극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며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였고, 또 이들을 통해 크리스마스 어린이 성경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역 어린이들을 만난 것은 또 다른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선교란 그 땅의 복음화뿐 아니라 주님께서 참여하는 자들을 당신의 일꾼들로 세우시는 훈련 과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단기선교 중 크게 기억에 남았던 일은 마약 재소자 시설을 방문했던 일입니다. 감옥을 연상시키는 재소자 지역을 간다는 것에 따른 긴장감과 함께, 둘째 날 아침은 더욱 뜨거운 찬양과 말씀 나눔이 팀원들 간에 있었고, 바쁘게 햄버거를 준비하고 유스들은 따로 모여 복음 제시를 위해 복음 큐브를 스페인어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높은 이중 문을 지나 재소자 시설 앞마당에 들어섰을 때, 우울한 눈빛으로 앉아 우리를 보고 있는 수용자들을 보며 왠지 모를 위압감에 쭈뼛쭈뼛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신학생들의 은혜로운 찬양과 캐롤이 하늘에 울려 퍼지며 모두의 마음은 하나씩 녹아갔습니다. 우리 팀의 찬양 차례가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 예정에 없이 가족팀을 소개하며 가족들의 사랑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실 때 모두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어진 재소자 형제, 자매들과의 포옹 속에 서로의 담이 허물어져 갔고 어색함과 두려움이 사라지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동일한 죄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준비해 간 햄버거로 점심을 나누고 복음 큐브를 통해 유스와 팀원들이 함께 각각의 재소자분들께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한 성령 안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단기선교는 가장 큰 목적이 멕시코 신학교와 신학생 섬김이었지만, 오히려 저는 그들의 진지한 예배의 태도와 매일 새벽 예배와 기도 시간, 특별히 열심히 준비한 은혜 넘치는 찬양을 통해 더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멕시코 오지에 사는 각 소수 민족들로 구성된 학생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한 후에 본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낙후된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반군들에 의해 점령된 땅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쏟는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사랑으로 멕시코 곳곳에 지역교회와 리더를 세우시는 선교사님의 열정에 감탄하고, 큰 차 사고 후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묵묵히 학생들의 식사를 꼬박꼬박 챙기시며 저희 단기선교팀까지 배려해주는 사모님의 모습에 절로 저의 나태함에 관한 회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선교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팀원들 간의 묵상 나눔 속에 지체 간의 유기적 연합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시는 주님의 법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멕시코 선교지의 신학생들뿐 아니라 이번 멕시코 단기선교를 통해 만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에 주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물을 주시며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며 주관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글 이선하 사모 (동부 평원, 유치부 교사)



My Mexicali Mission Trip

BEFORE I WENT, I WAS EXPECTING THE MISSION TRIP AS A NEW EXPERIENCE. MY DAD URGED ME TO GO AND I DECIDED TO GO ALONG. I WASN'T EXPECTING MUCH FROM THIS MISSION TRIP BUT I HAVE LEARNED SO MUCH OUT OF IT. THE MOMENT WE CROSSED THE BORDER AND ENTERED MEXICO I SAW A HUGE CULTURAL DIFFERENCE. THE HOUSES WERE ALL FENCED OFF, THERE WERE DIRT ROADS, STRAY DOGS, AND PEOPLE SURROUNDING FIRES. IT WAS LIKE GOING INTO A NEW WORLD. I WAS SCARED OF MEETING NEW PEOPLE AND WALKING AROUND THE NEIGHBORHOOD.

WHEN WE ENTERED THE SEMINARY, WE WERE GREETED BY THE STUDENTS WITH SONGS. I SAW HOW KIND AND HOSPITABLE THE PEOPLE WERE TO US AND IT SHOWED HOW MANY PEOPLE IN THE U.S. WERE CLOSED OFF. ONE DAY, AFTER LUNCH THE STUDENTS INVITED US TO PLAY SOCCER. I WAS NOT SKILLED AND WAS NERVOUS ABOUT PLAYING. WE STARTED PLAYING AND IT WAS A GREAT TIME. WE ATE ICE CREAM, PLAYED SOCCER AND BASKETBALL, AND HAD MANY LAUGHS TOGETHER. I SAW HOW IMPORTANT GOD WAS AND HOW THEY LIVED FOR GOD EVERY DAY.

ONE DAY, WE WENT TO A REHABILITATION CENTER. I WAS SOMEWHAT NERVOUS BUT I WENT AND GAVE THEM A MEAL AND TRIED TEACHING THEM ABOUT HOW JESUS DIED ON THE CROSS FOR EACH AND EVERY SINGLE PERSON. THEY ALL TOOK THE GOOD WITH HAPPY SMILES AND HUGS. WHY AM I TELLING YOU THESE EXPERIENCES? IT IS BECAUSE IT CHANGED HOW I THINK ABOUT MANY THINGS.

THROUGH THE MEXICALI MISSION TRIP, I REALIZED THAT I WAS SO BLESSED AND I TRIED TO BE MORE OPEN TO MANY PEOPLE. I UNDERSTAND HOW GRATEFUL I SHOULD BE FOR THE THINGS I WAS BORN WITH AND I AM MORE THANKFUL FOR EVERYTHING AROUND



ME. THE MISSION TRIP WAS NOT AN EMOTIONAL EXPERIENCE WHERE EVERYBODY SCREAMED OUT FOR GOD DURING PRAISE, BUT IT WAS A LEARNING EXPERIENCE TO SEE HOW GOD AFFECTS PEOPLE IN LIFE. THE AMAZING STORY OF HOW THE SEMINARY WAS BUILT AND HOW IT IS STILL STANDING AMAZED ME.

AS I SAW HOW GOD WORKED THROUGH SO MANY PEOPLE IT TRULY INSPIRED ME TO LIVE MY LIFE THINKING ABOUT AND ACKNOWLEDGING GOD'S PRESENCE EVERY DAY. I AM BACK WITH A DETERMINATION TO LEARN ABOUT GOD THROUGH THE BIBLE AND PRAYING MORE INTIMATELY WITH HIM.

I WANT TO LIVE WITH GOD AS MY LORD, SO DESPITE MY STRUGGLES I HOPE I CAN GROW IN CHRIST AND HAVE FAITH. WE ARE LUCKY TO HAVE A CHANCE OF VERY GOOD EDUCATION. WE ARE LUCKY TO HAVE A HOUSE THAT KEEPS US WARM. WE ARE LUCKY TO BE ABLE TO PRAISE GOD WITHOUT PEOPLE THINKING BAD. MOST OF US IN THIS AREA ARE EXTREMELY LUCKY FOR EVERYTHING WE HAVE. THANK YOU.

BY HOSU LEE (YOUTH, 9TH)

저는 출발하기 전, 단순히 선교를 하나의 새로운 경험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선교의 모든 결정은 아빠가 하셨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국경을 지나, 멕시코에 입국하는 순간 저는 굉장한 문화적 차이를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집들은 모두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었고, 먼지가 날리는 비포장도로, 길 잃은 개들, 불 가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동네를 걷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우리가 신학교에 방문했을 때 우리는 신학생들에게 노래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느꼈던 무관심 대신에 이곳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친근하게 대하는지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신학생들이 함께 축구를 하자고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저는 축구를 잘 하지도 못하는 데다가 노는 것도 맘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모두 축구를 시작했고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이스크림도 먹고 축구와 농구 경기도 하고 웃으며 놀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중요성과 그들이 매일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어느 날 우리는 재활 센터에 갔습니다. 저는 다소 긴장했지만, 가서 식사를 나누어 드리고 예수님이 각 사람과 모든 사람을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관해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한 미소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포옹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경험들을 말하고 있는 걸까

요? 그것은 여러 가지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에서 선교를 통해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고, 많은 사람에게 더욱 개방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멕시코 신학교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감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에 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볼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신학교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 사역이 아직도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선교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고, 따뜻하게 해주는 집이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정말로 복을 받았습니다.

글 이호수 (고등부, 9학년)

What does InReach Ministry mean to you?

THE INREACH MINISTRY MEANS SEVERAL TO ME. I REMEMBER SERVING THE INREACH MINISTRY BACK IN MIDDLE SCHOOL, BUT I TOOK A BRIEF HIATUS SIMPLY BECAUSE I WAS GOING THROUGH A ROUGH TIME IN MY RELATIONSHIP WITH CHRIST. THE PAST RETREAT, BELOVED, REMINDED ME OF THE TRUTH OF GOD. I WAS CONSTANTLY BEING ATTACKED BY THE LIES OF THE DEVIL BECAUSE OF MY PRIDE AND THE WALLS THAT I BUILT UP. BUT, GOD REMINDED ME OF HIS GOODNESS THROUGH THE TRUTH OF HIS WORD. HIS WORD CUT DOWN THESE WALLS I BUILT UP AND EVERY LIE THAT I FACED. OF COURSE, I STILL STRUGGLED AND I STILL DO, BUT I HAVE A NEW IDENTITY IN CHRIST.

저에게 인리치 선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인리치 선교에 참여했을 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지난 BELOVED 수련회에서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의 교만과 제가 쌓아 올린 벽 때문에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늘 공격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쌓아 올린 벽과 제가 맞닥뜨린 모든 거짓을 허무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겨웠고 아직도 어렵지만,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I THOUGHT THAT I WAS HATED BY THE CHURCH, BUT I NEVER REALIZED THAT I WAS BEING SELFISH. GOD TORE DOWN THIS TRUTH BY READING THE WORD. MY WALLS AND MY PRIDE MADE ME IGNORANT

OF THE TRUTH OF GOD. I REALLY FELT THAT GOD GAVE ME A HEART FOR THE LOST AND WAS GOING TO USE MYSELF AND MY TESTIMONY FOR HIS GLORY.

저는 교회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이기적이라는 점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벽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저 자신과 저의 간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THIS IS WHAT COMPELLED ME TO REJOIN INREACH AND SERVE. THIS BRINGS ME BACK TO THE MAIN QUESTIONS OF WHAT INREACH MEANS TO ME. INREACH MEANS BEING A SERVANT TO OTHERS WITHIN THE CHURCH AND HELPING EVERYONE BE CENTERED ON CHRIST. THROUGH SERVING WE ARE REFLECTING WHAT CHRIST DID FOR US WHEN HE CAME DOWN AND HUMBLING HIMSELF, THE SON OF GOD, TO SERVE.

이것이 제가 인리치에 다시 참여하고 봉사하기로 한 동기입니다. 이로써 제게 인리치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인리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섬김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글 조나단 민 (중고등부 인리치팀 리더, 11TH)
번역 황인주 (동부 평원 과달라하라 목장, IT 선교부 교육팀장, 편집부)

인리치 선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FOR EVEN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 MARK 10:45

OUR INREACH TEAM OF KEPC YOUTH GROUP HAS THE MAIN PURPOSE OF SERVING GOD THROUGH OTHERS IN THE BODY OF CHRIST. AS I WAS ON THIS TEAM, GOD REVEALED TO ME HOW SERVING EACH OTHER IN THE BODY OF CHRIST IS AS IMPORTANT AS SERVING OUTSIDE THE CHURCH. EVEN BEFORE, I THOUGHT IF YOU WANTED TO BE A COMMITTED SERVER OF GOD YOU HAD TO BE A MISSIONARY, BUT IT'S MORE THAN THAT. GOD CAN CALL YOU TO SERVE

YOUR CHURCH. EVERY SINGLE PERSON THAT IS IN OUR CHURCH IS PART OF THE BODY AND ALL OF THEM ARE IMPORTANT.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마가복음 10:45



임마누엘 장로교회 유스부 인리치 팀의 주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팀에 속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교회 밖에서 섬기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헌신하려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이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체이고 모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I JOINED THE INREACH TEAM LAST YEAR WITH THE MOTIVE TO SERVE GOD WITH MY ACTIONS AND TO DISCOVER WHAT GOD HAS IN STORE FOR ME. I WAS INTRODUCED TO INREACH WHEN I ASKED SOMEONE HOW I COULD SERVE GOD. INREACH WAS SMALL AT THE TIME AND THERE WERE ROUGHLY THREE OR FOUR PEOPLE THAT CAME EVERY

WEEK AND OTHERS THAT CAME OCCASIONALLY. I ACTUALLY DIDN'T KNOW WHAT I WAS DOING THERE BUT I KNEW THAT GOD PLACED ME THERE FOR A REASON. (CONTINUE ON NEXT PAGE, 다음면 계속)

저는 하나님 섬기기를 몸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작년에 인리치 팀에 참가했습니다. 어떤 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여쭙봤을 때 인리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때 인리치는 아직 소규모였는데,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는 서너명 정도였고, 다른 사람들은 가끔씩 참석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저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IN OUR YOUTH GROUP, THE PASTORS HAVE FOUND SOME ISSUES IN OUR COMMUNITY AND NOTICED THAT MOST OF THE MEMBERS APPEARED TO BE IN CLIQUES. CLIQUES ARE THE TIGHT-KNIT GROUP OF FRIENDS, WHICH SOMETIMES LEAD OTHERS TO FEEL LEFT OUT. I HAVE TO ADMIT, I WAS ALSO IN CLIQUES. HOWEVER, SINCE OUR LAST WINTER RETREAT, EACH CLASS BEGAN TO GIVE MORE EFFORT TO UNIFY, AND OUR TEAM HAS BEEN GROWING EVER SINCE. WE NOW HAVE AROUND 17 PEOPLE THAT COME WEEKLY TO HELP SERVE OUR MINISTRY. WE STARTED ADDING MORE IDEAS AND PLANS TO OUR YOUTH GROUP, FROM MAKING WEEKLY JUBOS THAT REMIND THEM OF ANNOUNCEMENTS TO PREPARING EVENTS FOR FELLOWSHIP. EVENTS FOR FELLOWSHIP INCLUDE EVENTS SUCH AS BROTHERS AND SISTERS APPRECIATION, PICNICS AND OTHER CLASS OCCASIONS. WE ALSO RECREATED THE WELCOMING SYSTEM WHICH IS HELPING THE MEMBERS AND THE NEWCOMERS FEEL WELCOMED WITH GREETERS AS SOON AS THEY COME TO SERVICE.

ANOTHER THING INREACH MEANS TO ME IS WE ARE IN THIS TOGETHER. GOD TAUGHT ME TO LOVE, ESPECIALLY THROUGH THE DEVO-

TIONS THAT WE SHARE WITH ONE ANOTHER. THROUGH DEVOTION, WE UNDERSTAND WHAT IS GOING ON WITH EACH OTHER AND KEEP EACH OTHER ACCOUNTABLE. WE GIVE EACH OTHER BOOSTS AND ENCOURAGE EACH OTHER DURING THEIR WALK WITH GOD. WE PRAY FOR ONE ANOTHER AND WE TRUST ONE ANOTHER. GOD IS THE REASON WHY WE WANT TO SERVE BECAUSE HE FIRST SERVED US.

전도사님들께서 청소년부 내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셨고, 대부분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끼리끼리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무리 지어 다니는 아이들은 아주 가까운 친구들끼리만 뭉쳐 다녀서 때로는 다른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친한 친구들하고만 몰려다니는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수련회 이후로 각 반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우리 팀은 더욱 성장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팀은 17명 정도가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매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소식을 알리기 위해 주보를 만들고 친교 행사를 준비하는 등, 중고등부를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교 행사로는 형제자매 감사모임, 피크닉, 기타 반별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안내를 맡은 사람들이 기존 부원들과 새신자들을 맞이하도록 해서 예배에 오자마자 환영받는 느낌을 받도록 환영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인리치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서로 나누는 헌신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제게 가르쳐주셨습니다. 헌신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이해하고 서로가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격려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글 에스더 조 (중고등부 인리치팀 리더, 9TH)
번역 황인주 (동부 평원)

사랑하는 예수님께,

SOMETIMES, WHEN I HAVE HARD TIMES YOU GIVE ME COURAGE. THANK YOU FOR GIVING ME COURAGE WHEN KIDS BULLIED ME IN FIRST GRADE. YOU GAVE ME COURAGE WHEN THREE KIDS TEASED ME ABOUT MY FOOD. AT FIRST, I COULDN'T STAND THEM TEASING ME BECAUSE ONE OF THEM WAS MY BEST FRIEND. I DIDN'T HATE MY FRIENDS FOR TEASING ME, BUT I STARTED TO STAND UP FOR MYSELF BECAUSE I BELIEVED IN YOU THAT YOU'VE ALWAYS GIVEN ME THE BEST. YOU ALWAYS GIVE ME WHAT IS GREAT AND JUST RIGHT FOR ME. IT WAS ACTUALLY MY STRONG BELIEF, THE NAME OF GOD, AND YOUR STRENGTH THAT KEPT MY LEGS FROM GIVING WAY AND SOBBING AT SCHOOL. MY FRIENDS AND I MADE UP AFTER THAT. SO I GIVE YOU THANKS, MY LIFE, AND MY DAYS TO YOU, LIKE IT SAYS IN MY FAVORITE SONG, WHICH I SANG AT THE AUDITION FOR A SPRING MUSICAL.

LORD, I OFFER MY LIFE TO YOU,
EVERYTHING I'VE BEEN THROUGH,
USE IT FOR YOUR GLORY,
LORD I OFFER MY DAYS TO YOU,
LIFTING MY PRAISE TO YOU,
AS A PLEASING SACRIFICE.
LORD I OFFER YOU MY LIFE.

THANK YOU ONCE AGAIN FOR GIVING ME COURAGE I DIDN'T POSSESS BEFORE THE TEASING.
FROM,
CASEY KIM



가끔 제가 힘이 들 때마다 예수님은 저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1학년 때 다른 아이들이 저를 놀릴 때였어요. 세 명의 친구들이 제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놀렸을 때 예수님은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 애들이 저를 놀리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래도 저를 놀리는 그 친구들이 입지 않았고, 담대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언제나 제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저의 강한 믿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강함 덕분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저는 결국 친구들과 화해 할 수 있었어요. 봄 뮤지컬 오디션에서 불렀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가사처럼, 감사와 저의 삶과 제 하루하루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놀림 받기 전에는 갖지 못했던
용기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케이시 올림

글 김동연 (북부 평원 플라
목장, 초등부 4학년)
번역 황인주

Sheep and Shepherd



AS A NEWLY APPOINTED JUNIOR SHEPHERD, IT WAS THRILLING TO HELP OUT AND VOLUNTEER FOR THE YOUNGER CHILDREN AND SEE GOD'S HANDS WORKING THROUGH MY LIFE TO CHANGE OTHERS. SEEING CHANGES IN CHILDREN WERE ONE OF THE WAYS I REALLY HAD AN ENCOUNTER WITH GOD.

IN MY MOKJANG, THERE ARE TWO YOUNG BOYS. AT FIRST, THEY WERE REALLY SHY AND DIDN'T WANT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AND WORKSHEETS THEY WERE GIVEN. THEY WOULDN'T SAY A WORD WHEN WE WERE SHARING OUR PRAYER REQUESTS AND WOULD PLAY AROUND INSTEAD. WHILE I WAS TRYING TO GET THEM TO WORK ON THE WORKSHEETS WITH THE OTHERS, THEY WOULD CONTINUE TO IGNORE ME AND PLAY AROUND. I KNEW IT WOULDN'T BE AN IMMEDIATE CHANGE SO I STAYED PATIENT. GRADUALLY, THEY STARTED OPENING UP AND THEY BOTH SURPRISED ME AND THE OTHERS BY SHARING THEIR WEEKS AND PRAYER REQUESTS. I KNEW THAT GOD HAD STARTED WORKING IN THEM, NOT BY THE FACT THAT THEY WERE SHARING, BUT BECAUSE I HAD NOTICED THEM ENJOYING THE TIME WHEN WE WOULD READ THE BIBLE AND FILL IN THE BIBLE VERSES TOGETHER. AS EACH MOKJANG DAY WENT BY, THEY WOULD EASILY SHARE ABOUT THEIR WEEKS AND WHAT THEIR STRUGGLES ARE. I AM TRULY AMAZED BY HOW MUCH THEY HAVE CHANGED AND GROWN IN

THEIR FAITH EVEN IF IT IS JUST THE START. LOOKING AT THOSE BOYS, I'VE REFLECTED ON MY GROWTH IN SPIRITUAL FAITH AND NOTICED HOW GOD'S LOVE AND GRACE DON'T COME BY FORCE.

IT TAKES TIME AND PATIENCE BECAUSE NOT EVERYONE'S FAITH BECOMES IMMEDIATELY STRONG. HAVING PATIENCE IN GOD IS REALLY IMPORTANT IN YOUR WALK WITH GOD BECAUSE A RUSHED RELATIONSHIP WITH HIM ISN'T REALLY A RELATIONSHIP. JUST LIKE ANY OTHER RELATIONSHIP, IT TAKES TIME AND PATIENCE TO GET TO KNOW PEOPLE, AND KNOWING GOD IS THE SAME AS WELL. YOU CAN'T GET TO KNOW GOD IF YOU RUSH THE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HIM BECAUSE HE WANTS TO GET TO KNOW YOU FROM THE SMALLEST IMPERFECTIONS TO THE BIGGEST FLAWS. HE DOESN'T CARE HOW OLD YOU ARE OR HOW GOOD-LOOKING YOU ARE. AFTER ALL, WE ARE HIS CHILDREN AND THAT'S HOW HE WANTS US TO BE WHEN WE GET TO KNOW HIM. GETTING A CHANCE TO REFLECT ON THAT WHILE DOING MOKJANG WAS A NEW EXPERIENCE FOR ME, BUT IT WAS VERY EXCITING TO SEE GOD WORKING THROUGH THEM. AS A JUNIOR SHEPHERD, I ENCOURAGE MANY PEOPLE TO VOLUNTEER AND LEAD IN THE NAME OF CHRIST!

WRITTEN BY CHLOE CHO (JUNIOR SHEPHERD, 8TH GRADE)



새로 임명된 어린이 목자로서 저보다 어린아이들을 돕고, 저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것이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목장에는 남자아이들이 2명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활동에 참여하지도 않고 나눠 준 목장 진행 안 문제지도 풀지 않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장난만 쳤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성경 문제를 풀게 시켜도 저를 무시하고 놀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당장 변하지는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한 주간 있었던 일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다른 아이들도 놀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들의 얘기를 나누는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함께 말씀 읽고 성경 구절을 적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들이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그 아이들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고 얼마나 신앙이 자랐는지를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의 영적인 믿음 성장이 되 돌아보게 되었고, 하

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역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이 순식간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서두르는 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여러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점차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도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서두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불완전한 모습부터 커다란 결점까지 모두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외모가 아름다운지는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을 섬기면서 이런 점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어린이 목자 중 한 명으로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원하고 앞장서는 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글 조유진 (북부 평원 사하라 목장 어린이 목자, 중등부 8학년) / 번역 황인주 (동부 평원 과달라하라 목장, IT 선교부 교육팀장, 편집부)

가정예배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신양이 좋으신 부모님 덕에, 우리 가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을 어떻게 드렸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그 시간이 너무도 즐기고 힘든 시간이었다는 것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던 어린 나이에 어른들 수준의 가정예배를 따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고, 찬송가 가사도 어려워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부모님을 따라서 함께 드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둘째가 유치원을 시작할 무렵, 4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서 가정예배를 특별히 강조하며 캠페인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까지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게 했고, 매주 목장 모임이 있었기에 가정예배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와 권면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알게는 되었지만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경험했던 가정예배의 지루함과, 가장으로서 예배를 이끌고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을 내리고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가끔은 아내가) 본문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지루하지 않고 간단하게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였는지 짧게 끝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16년 전교인 성경 통독에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하면서 아이들과 드리는 가정예배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처럼 제가 가정예배 본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성경 지식과 가르침의 은사만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직접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며 직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가르치려고 노력하왔던 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후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나눔 위주로 바꾸었습니다. 시작 기도 후, 함께 찬양 한 곡을 부르고, 말씀 한 장을 서로 돌아가며 읽은 후, 지난 주간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한 구절을 나누고 감사 제목을 나눈 후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나눔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 훈계와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꼭꼭 누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때에 맞게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나누게 했습니다. 예

상 외로, 어리다고 생각했던 아이들로부터 깊이 있고 진지한 나눔을 듣기도 하고 평소에는 잘 털어놓지 않던 학교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가족은 큐티한 말씀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큐티한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과 감사할 제목 하나를 나눕니다. 큐티 초보인 아이들의 서투른 부분이 보일 때마다 제가 큐티하는 방법을 상세히 '강의'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큐티의 핵심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깨달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가정예배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와 환경에 맞게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정예배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글 이종협 (서부 평원, 가정사역부 가정섬김팀장)



예수, 오 그 이름

주일학교 시절 중등부에 올라가서 멋모를 1학년, 여름 수련회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회에서 처음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두운 분위기의 기도시간에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소리내어 기도했고 저는 그 상황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전엔 혼자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기에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나도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볼까?' 였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 순간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성령세례였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어린 심령에 찾아와 과거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저를 채워주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제게 느끼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여 교회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찬양팀에서 피아노로 섬겼고, 또 임원으로 섬기며 날마다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당시 중등부 찬양팀은 꽤나 스파르타식(?)이었는데, 100곡이 넘는 찬양곡의 가사와 율동을 외워서 합격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찬양 중에서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며 율동을 하시던 찬양팀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도 그 선생님이 눈물 흘리는 이유를 곧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잘 표현한 가사와 청아한 선율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공허함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면 피아노를 치며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금세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 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한참 후, 청년이 되고 나서야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 사도바울의 고백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골로새서 1:26-27)

이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비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 큰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전도의 미려한 것으로 인류에게 복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성경 속 비밀들을 차근차근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20)

예수님은 제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저의 인도자이며 구원자이셨습니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며 밤마다 기도로 부르짖던 고3 시절에도, 신앙이 소홀해져 세상 풍속을 즐기고 방황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때에도, 군대 시절 초소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시간에도, 하늘을 날아 미국 땅을 처음 바라보며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늘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의지하며 일평생 살아온 예수의 이름은 권세(Authority)와 능력(Power)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즐거움을 회복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이름을 통해 육체적 불치병과 우울증, 불면증 등 각종 마음의 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는 우리 가정의 미래도 그 이름을 의지하기에 염려할 것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13)

저의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을 얻는 길임을 믿습니다. 제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이 어둡고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의 비밀을 밝히 보여 선포하기를 기도합니다.

"...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2~3)

글 강한솔 (북부 평원 탄자니아 목장, 1부 찬양팀(건반))



기쁨과 응답으로



영광이 가는 동경 목장



안녕하세요? 저는 동경 목장을 섬기는 박월애 부목자입니다. 남편 박명옥 목자는 이름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시지만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진 '진짜 사나이'입니다. 아들이 보면 아저씨가 너무 째깍하다고 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글 솜씨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임마누엘지에 목장을 소개하게 되어서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 가족은 남편과 두 딸이 있고,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밀브레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닌 지는 5년 되었는데 그동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교회에서 25년간 섬기다가 나이도 들고 지역도 먼 교회를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를 임마누엘로 부르셨다는 걸 첫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였고, 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때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어요. 주일마다 달고 오묘한 설교를 이삼십 년씩 듣고 계신 성도님은 정말 복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 결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다섯 해를 넘기면서, 저의 인품이 목사님 발꿈치만 큼이라도 닮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게 하셔서 2년 전에 목자, 부목자로 두 목원 가정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먼 지역이라 목원들도 장거리 목장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각 가정을 열고 예배드리는 믿음을 보면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일 년 전부터 새로운 가정을 보내 주시길 기도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응답으로 세 가정을 보내 주셨어요. 새 목원들도 교회에서는 멀고 우리 목장과는 가까운 지역 분들로 채워주셨어요. 어쩔,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 못한 일까지 다 맞춰서 채워 주시니 너무 멋지십니다.

그러나 목원들이 많고 연령도 아기부터 60대까지 광범위하게 되자 조용하게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워졌고 아이들이 다투기 시작하니까 부모들도 사이가 서먹서먹해져 가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가정은 목장을 당분간 쉬겠다고 통보가 왔고, 한 자매님은 나에게서 맘을 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숨만 쉬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새해에 목장이 열리면서 다들 제자리로 돌아와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에 꼭 응답하시는 아버지세요.

저희 부부는 너무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데 목자, 부목자를 따라와 주시는 목장 식구들이 더 훌륭하고 멋지세요. 그 멋진 분들을 소개해 볼까요? 노민우/ 강세라 가정의 딸 다윤이와 아들 재혁이, 신호준/ 박광미 가정의 세 자녀 예찬이,

찬미, 예진이, 신재관/ 이민경 가정의 아들 이안이와 동부에서 공부 중인 딸 지수, 이형호/ 이신디 가정의 두 살 아기 지아, 전성배/ 정한나 가정의 두 살 반 아기 재영이, 한마디로 다복한 목장 식구들이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들이 얼마나 보석같이 귀한지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범사에 예수님을 닮으며 자라가기처럼 이 가정들이 매주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하면서 보석같이 귀하게 성장하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민우 형제님은 미디어 제작팀에서 섬기시고 아내 세라 자매님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드리고 싶어 아직 운전이 서툴지만 한 시간 넘게 운전하여 화요일 연습에 참여하여 2부 예배 찬양팀에서 플루트를 연주하세요. 신디 자매님은 마당밭이셔서 VIP를 엄청 섬기시고 작년 신애라 집사 간중 VIP 초청 잔치 때 초대도 많이 하셨어요. 신호준 형제님은 전도 부장님으로, 아내 광미 자매님은 교회 도서실에서 섬기고 계시고요. 신재관 형제님은 저희 목장의 선교를 담당하시고, 민경 자매님은 예능 친교 봉사팀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또 목자님은 미디어 제작 배포팀에서, 저는 새가족 영접팀과 바나바 사역을 작게나마 섬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목원으로만 머물지 않고 교회에서 헌신하기에 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목장, 초원, 평원이 연합하여 선교에도 동참하게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의 줄로 목장이 가족의 끈으로 묶였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자매보다 더 단단히 묶인 가족이 용서 못 할 일도, 미워할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사용하고, 보면서 감동하고, 찬양을 들으며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앞으로 소원하는 기도 제목은 저희 목원들이 자녀들과 목장 선교 후원자인 일본 동경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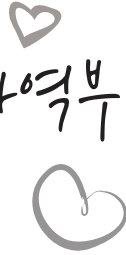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아직 목장에 소속하지 않은 분들께 목장에 한번 가보시라고, 그리고 같이 지지고 볶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보시라고, 큰 교회일수록 더 목장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글 박월애 (서부 평원 동경 목장 부목자, 새가족 영접팀, 바나바 1팀장)





마음을 품게어 함께 성장하는 상담사역부



‘상담’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떠올리는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들이 있을 것입니다. 8,90년대 이전에 한국에서 초, 중, 고를 다닌 사람들의 머릿 속에는 ‘상담’, ‘상담실’이란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지도와 훈계를 받으러 가는 것과 연관되기도 하고, 마주 앉은 대상에게 별로 내키지 않은 상태로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불편함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관심과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담’이라는 말에는 무언가 힘을 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풀이한다면, 상담(相談)이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넓게 해석한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에서 나누게 되는 무수한 대화를 가운데 상담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상적인 대화를 ‘상담’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일반적인 대화와 구별되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듣기는 들되,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을 들을 수 있으며, 말하기는 말하되, 상대의 마음을 반영할 수 있고, 공감을 전달할 수 있으며, 통찰과 이끌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공감과 경청, 해석” 등이라 일컬으며, 정신분석 상담가인 Reik는 “제3의 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상담사역부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제3의 귀”를 가지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귀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부서입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고비 고비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와 진실한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는 한 사람이 참으로 간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살아갈 수록 그러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리스도 공동체는 굳이 따로 부서를 만들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겠지만 아직 천국을 향해 가는, ‘공사 중’인 우리에게는 각각의 은사에 따라 한 지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기에 상담사역부가 어설피게나마 그 역할을 감당해 보고자 합니다.

2018년 한 해 상담사역부는 몇 가지 사역을 통해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한 지체로서 일하려 합니다. 먼저, 생애주기(LIFE CYCLE)별로 유사한 발달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상담 전문가와 성장을 위한 집단상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용과 공감의 이루어지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참여자들이 자신을 열어 보이고, 삶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발달적 위기를 심리학적 그리고 성경적 지혜 안에서 적응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기독교 상담의 기초 이론과 실제 적용 기법들을 배울 수 있는 상담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담 영역에 끌림이 있는 분들에게 배움과 실천이 쌓이면서 장기적으로 평신도 상담사역자가 교회 안에서 성장하여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삶의 위기나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을 교회 내의 상담사역자와 연결하고, 나아가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개발하는 노력도 계속해나가고자 합니다. 부서 내부적으로는 함께 성장하기 위해 공부와 자기 성찰 모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묘자요, 모사(WONDERFUL COUNSELOR)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상담자이시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상한 마음을 가진 지체들이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만져주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연결 고리가 되는 것이 저희가 품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은요. 올 한 해 부족하나마 저희의 간절한 마음들이 상처 입은 지체들의 마음에 살포시 포개어지기를, 그로 인해 아픔이 덜어지고 완벽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P.S. 상담사역부에서 개최하는 행사 광고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예배실 입구 왼쪽에 위치한 상담 신청함을 편하게 이용해주세요.

글 하영윤 (산호세 평원 CBI 목장, 상담사역부 부장)





페르디난드 (FERDINAND, 2017)



카를로스 살다나 감독의 '페르디난드'는 유명한 동화 '꽃을 좋아하는 소, 페르디난드' 원작을 바탕으로 제작된 서정적이고 교훈적인 애니메이션 영화이다.

주인공 페르디난드는 스페인의 한 훈련장에서 투우로 길러지는 어린 검은 황소이다. 훈련소의 다른 어린 황소들은 모두 훌륭한 투우가 되는 것이 꿈이라 날마다 맹연습 중인데 그는 도통 싸움에 관심이 없어 다른 소들의 비웃음을 산다. 사실 황소들이 투우가 되려는 이유는 꽤 합당해 보인다. 경기에 나가 승리를 안겨줄 훌륭한 투우가 되지 못하면 곧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아 도살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소들은 날마다 열심히 싸움 연습을 한다.

그러니 세상 물정 모르고 꽃냄새나 말으며 연약한 동물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상냥한 모습은 다른 소들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어리석은 모습일 뿐이다. 페르디난드의 아빠 소도 유약한 그를 걱정한다. 투우경기에 뽑혀 나가게 된 자랑스러운 아빠 소는 어린 페르디난드에게 강한 투우가 될 것을 당부하며 경기장으로 떠난다. 그러나 아빠 소를 떠나 보내고 얼마 후, 페르디난드는 우연히 명예의 홀에 들어갔다가 큰 충격을 받는다. 그곳에는 승리한 황소들의 사진과 뿔이 전시되어 있었고, 페르디난드 아빠 소의 것도 있었다. 싸움을 못 해 도살장으로 끌려가든, 승리를 안겨준 후 뿔까지 제공하고 죽음을 맞든, 그곳은 황소들을 위한 곳이 아님을 깨닫고 페르디난드는 훈련소를 탈출한다.

그리고 운 좋게도 마음 좋은 꽃농장 주인과 그의 딸 니나를 만나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꽃축제가 열린 날 사건이 터진다. 축제가 열린 날, 페르디난드는 홀로 집에 남겨졌으나 함께 가고 싶었던 나머지 몰래 따라나선다. 하지만 꽃 구경도 잠시, 벌침에 쏘여 질주하는 바람에 축제는 엉망이 되고 그는 투우 훈련소로 붙잡혀 간다. 그리고 결국 그토록 피해왔던 투우 경기장에 서게 된다. 투우사들이 그를 자극하자 사나운 힘으로 달려 투우사를 날려 버린다. 황소의 승리가 되는가 싶었으나 곧 운순한 모습을 되찾고 싸울 뜻이 없음을 내비치는 페르디난드. 투우사는 자신의 승리로 간주하고 그를 죽이려 했지만 항복한 페르디난드를 향하여 관중들은 하얀 깃발을 들어준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경기장을 찾아 온 니나와 헤어져 다시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찾아간다.

이 영화는 투우경기의 잔인함과 불쌍한 황소들의 운명에 대해 많은 여운을 남긴다. 죽음을 코 앞에 둔 것도 모르는 채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야 하는 것은 동물들에게 마저도 너무나 절망적인 길이다. 게다가 투우의 운명이 외모와 몇 가지 특징 때문에 타의적으로 부여된 것이라면, 심지어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 불행하고 부당한 일인지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투우 경기는 우리 인간 사회를 모델 삼아 만든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닳은 구석이 많아 보인다. 사람들은 황소가 불쌍하다며 투우 경기의 폐지를 부르짖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이기고 올라서려고 죽도록 공부하고 경쟁하며 사는 인간 사회의 모습은 오히려 투우 경기의 세계와 비슷해 보인다. 그래서인지 영화 속, 도살장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열심히 싸움 훈련을 하는 황소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세상에는 성공하기 위해, 더 강한 '투우'가 되기 위해, 날마다 훈련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 성공의 끝은 어디인가? 그 화려해 보이는 곳은 과연 우리의 삶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곳인가? 영화에서 페르디난드가 발견했던 '명예의 홀'은 화려하지만 허무한, 의미없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었다. 그 곳은 투우사의 만족과 사욕을 채울 뿐, 정작 목숨을 걸고 싸운 투우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삶 전체와 바꿀 가치가 조금도 없는 허무한 곳이었다. 그래서 투우경기를 하는 황소가 더욱 불쌍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인간인 우리도 투우 경기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기에 황소들을 보면서 측은하고 부당하다는 마음이 드는데, 죄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은 죄에 붙들려 사는 인간을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답답하실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훈련소에 갇힌 투우처럼 살기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두려움과 가짜 자부심에 붙들려 평생 고생스럽게 싸우다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죄의 굴레에서 나오도록 부르신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나라로 넘어오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즐기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 삶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에 가장 어울리는 삶이기 때문이다.

글 한연선 (산호세 평원 쿠킹 목장 부목자, 유치부 교사, 편집팀)

인권 변호사에서 목회자로....

EM 데이빗 문 목사님과 그의 만남

2부 예배가 끝나는 오전 11시 30분경, 경쾌하게 흐르는 찬양과 반가운 인사 소리를 따라가는 발걸음이 소예배실에 머무른다. EM (ENGLISH MINISTRY) 성도들이 친교를 나누고 있는 소예배실 로비는 연노란 빛 벽을 배경으로, 한쪽에는 커피와 티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입구에서는 예쁜 화분들이 들어오는 이를 반긴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능통한 변호사 출신의 목회자,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수식어만으로도 자라온 배경과 신앙이 궁금해지는 목회자, ENGLISH MINISTRY를 이끌어 가시는 데이빗 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Q. 목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EM 예배실 입구 한곳에 모여 있는 화분들이 인상적인데요? 어떤 의미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EM 공동체와 함께 꾸미고 이루어가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원하는 성도분들이 자신에게 의미있는 그림을 한곳에 가져와 모으기도 하고, 화분 공간은 한 성도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화분을 가져오게 했어요. 일 주일에 한 번만 물을주고 가꿔도 되는 나무들로 그 아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에 몸담고 나무를 키우며 마음도 자라가기를 원하는 바람에서 준비했습니다.

Q. 어린 시절 이야기와 가족 관계, 신앙 배경이 궁금합니다.

저는 울산에서 태어나 4살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살다가 14살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후 다시 텍사스에서 대학을 마치고 캐나다로 건너가 로스쿨을 마친 후, 2년여간 변호사 생활을 하던 중, 목회에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뚜렷하게 느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선교사님들이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부터 신발을 들고 따라다니던 6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분이십니다. 부모님은 중국에서 18년간 선교사역을 하시다가 미국 동부의 신학원에 와싱턴 중앙장로 교회에서 시니어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선교지로 부르심을 받아 최근에 중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정도 중국에서 부모님의 선교 활동을 도와 낮에는 고위층 자녀들의 영어 교육을, 저녁에는 탈북자 가정을 섬겼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로 인해 복음 통일을 꿈꾸게 되었고, 석사 과정에서 남북의 통일헌법과 복음을 통한 통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뮤지컬을 통해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적인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Q. 변호사에서 목회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은 계기와 영향을 주신 멘토가 있으신지요?

저는 어떠한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도해주신 길을 걸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부모님의 선교사역을 도울 때, 중국의 관시제도로 인해 많은 선교사들이 힘든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국제변호사가 되어 국제법을 통해 이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법이나 헌법에 더 흥미를 느끼고, 인권법 관련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을 할수록 자기 합리화를 통해 제가 원하던 방향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저 자신을 부정할 수 없는 순간이 왔고, 그래서 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의 멘토가 되셨던 류응렬 목사님(현 워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의 결심을 100% 밀어주셨던 것은 이때였습니다.

Q. 변호사의 경험이 목회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토론토의 도심 45층에 위치한 로펌에서 보이는 토론토 시내 야경은 마치 세상을 모두 가진 듯한 느낌이었지요. 하지만 목회의 길을 선택하고 유스 사역을 하면서 돈과 법으로 돌아가는 세상적인 모습이 아닌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만져줌으로써 믿음과 확신으로 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었죠. 제가 법을 공부하고 일했던 것이 너무 감사했던 점도 있습니다. 무신론이나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받는 요즘 아이들에게서 교회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변증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생활에 연관된 기독교에 관해 설명해 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 해답을 받은 아이들이 신빙성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스 시절은 아이들의 성격이 고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심성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의 느낌과 재미만 가지고 다음 세대로 올라갈 경우, 그 재미는 사회가 주는 재미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변증과 신학과 사랑을 동시에 주고 싶었습니다.



**Q. 2세대에게 가장 좋은 KM과 EM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며 또한, 우리가 한 지붕 아래서 조화롭게 성장해 나가기 위한 목
사님의 바람은 무엇인가요?**

KM 혹은 EM, 한국인이나 혹은 2세이나? 와 같은 그 어떤 문화적인 것도 성경이 추구하는 삶을 아우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와 개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문화가 정체성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크리스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며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오순절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채로 함께 같은 예배를 드리고 떡을 나누며 부흥해나갔던 역사를 보면, 언어와 문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행정적인 면에서는 입양하는 문화, 즉 한쪽이 양보하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같은 한국인들끼리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베이 지역의 많은 소수인종을 입양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항상 내가 먼저 죽고, 문화가 없는 존재로 살며 성숙할 수 있도록 EM이 먼저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KM 이 가지고 있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 RADICAL 한 믿음을 EM에게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올해 계획된 4번의 영어 연합 예배를 통해 기대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COVENANT WORSHIP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요, 영어 연합예배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가족 안에서 영적인 추억을 만드는 것” 입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각자의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 부모와 자녀가 예배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예배를 통해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영적인 추억을 나눔으로써 가족 안에서 영적인 대화를 공유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30분 남짓한 예배를 통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부모가 자녀들과 같은 영적인 추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같은 삶을 공유하고 보여줄 때, 아이의 믿음을 키워줄 수 있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연합예배를 통해 아이들과 어른들이 원하는 예배의 모습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예배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CONSUMERISM(소비자상주의)을 따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Q. KM 부모가 EM 자녀와 문화적인 차이를 좁히며 신앙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실리콘밸리 아이들의 성격적 가치관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어떤 말씀이 어떻게 삶에 적용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직접 보여주는 모습은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닐 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결국은 부모님에게 일어나는 삶이 나에게 똑같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결론에, 교회에 붙어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의 유일한 해답으로, 하나님을 찾는 부모님의 모습, 풍요 속에 유일한 감사로 계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모님의 삶 자체가 그 어떤 커리큘럼보다도 전염성이 강한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Q. 다민족 사역에 대한 비전은 어떠하신지요?

각자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로지 복음이 모든 것의 답이 되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민족에게 다가가기 이전에 먼저 문화가 상관없는 즉, 다민족적 색채를 가진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다민족의 색채를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변화도 있어야 하지만, 제일 큰 발판은 기도뿐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비전을 구하고, 그들과 함께 시스템을 정비해나가야 하겠죠. 그러나 교회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EM이 벽차오르는 모습이 KM에게도 덕스럽고 영성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만들어 주셔야 하는 문화이죠.

Q.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가장 좋은 점과 목사님을 세워주신 성경 구절은 무엇인지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강한 응답을 16회나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좋을 때는 행복하고, 힘들 때도 버틸 수 있는 강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첫 사역지에서 길을 시작하는 저를 믿어주시고 “실수해도 됩니다.” “일하지 마시고 편안히 하시면 좋은 사역이 될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사역을 잘 하는 것보다 내가 오늘도 큐티를 하고 내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곳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상체계나 생각을 좇는다는 것이 아닌 유일한 답인 독생자, 예수를 좇는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이 구절이 법을 했을 때나 신학을 했을 때 언제나 저를 잡아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확실한 응답만큼이나 하나님이 꼭 짊어 우리 교회에 보내신 목회자임에 감사하게 되었다. 믿음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지만, 확신은 부족한 실리콘밸리의 이민 2, 3, 혹은 4세대에게 오로지 복음을 통해 천국 시민에 정체성을 둔 믿음을 상속하는 역할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차례다.



정리, 글 김연희 (복부 평원 폴라 목장, 편집팀장) | 한연선, 김정신 공동취재 | 사진 김흥대



예배와 영혼구원,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www.kepc.or / Tel. 408.263.5100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발행인	손원배
편찬인	황의철
기획	김정신
진행	김연희 / 한연선 / 김정신
사진	김홍배 / 윤영숙 / 김범진 / 안중훈 / 박종현 / 김홍대 / 여환승 / 우현택 / 김기훈
교정 및 번역	성경하 / 이진경 / 황인주
편집디자인	김유경 / 한 혁 / 정용익 / 윤주영
표지그림	윤주영